

“눈치야근은 그만”... 인사처, 근무혁신으로 일하는 문화바꾼다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 선정... “휴가는 자유롭게” 등 실천방안 제시

인사혁신처가 신바람 나게 일하는 수평적 조직을 위해 10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매달 1~2건씩 중점적으로 실천해 점진적으로 조직문화를 바꾸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천년(MZ) 세대를 포함한 직원 의견을 수렴해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수평적·혁신적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를 선정해 시행한다.

이번 과제들은 근무혁신 및 일하는 문화 바꾸기와 관련된 10가지 실천 방안을 담고 있는데, 강제적·형식적인 방식이 아닌 부서장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눈치야근은 그만하게 ▲식사는 자유롭게, 회식은 건전하게 ▲회의는 똑똑하게 ▲보고는 간결하게 ▲칭찬은 계속되게 ▲결속력(팀워크)은 견고하게 ▲불필요한 일 버리게 ▲관계는 평등하게 ▲휴가는 자유롭게 ▲근무는 유연하게 등 10가지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10대 과제 중 매월 1~2건 정도의 중점 과제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과제는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자를 일컫는 새천년(MZ) 세대를 포함한 직원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눈치성 야근 그만하게 해 주세요”, “관리자와는 밥



먹는 것도 일입니다”, “획일적 보고문화 개선이 필요해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저희 과장님은 직원이 휴가를 쓰려고 하면 사유를 물어봐요”, “결론이 이미 정해진 ‘답정너’ 회의는 지양합시다” 등 새천년(MZ) 세대 특성을 반영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에 따라 ‘눈치야근은 그만하게’는 정시퇴근을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기 위해 부서장이 솔선해 매주 월~목사기 2회 이상 정시에 퇴근하도록 한다.

아울러 퇴근 후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업무시지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도록 했고, 부서장이 직원의 초과근무 상황을 세밀히 관리하고 초과

근무가 많은 직원은 면담을 통해 업무조정 하도록 하는 등 맞춤 관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휴가는 자유롭게’는 모든 직원이 월 1회 이상 연중 고르게 쓸 수 있도록 개인별 연가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해 실천하는데, 부서장도 월 1회 이상 연가를 의무 사용하며 직원에게는 연가 사용을 묻지 않는 등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모성보호시간과 임신검진휴가 및 육아시간 등 가정친화적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식사는 자유롭게, 회식은 건전하게’는 관리자가 내부 직원과의 식사보다 외부 인사와의 식사를 통해 소통과 자기발전 기회를 갖고, 부서 내

식사나 회식 일정은 충분한 날짜를 두고 사전에 공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회식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획일적인 저녁식사보다 점심이나 문화회식 등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다.

보고서도 장황한 내용을 지양하고 핵심이 중심의 1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내용 전달에 충실한 ‘보고는 간결하게’를 장려하고, 업무시지 때에는 구체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나 긴급한 내용일 경우 보고서 대신 구두나 전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한 보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과제에 대해 근무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장현희 인사조직과 주무관은 “매월 과제를 선정해 자발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고 기대된다”면서 “이번 과제 추진을 통해 인사처가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어지는 조직이 되고, 나아가 공직사회 전반에 이와 같은 신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처는 7월 중점 과제로 ‘눈치야근은 그만하게’와 ‘휴가는 자유롭게’를 선정해 실천하고 내·외부 홍보도 진행하며, 10대 과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조직문화 개선 효과 등과 관련된 처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칼럼] ABC협회 퇴출을 환영하며

모처럼 사이드 같은 정적이 발표됐다. 많은 중소 언론들의 속살이 제대로 한방 날려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이견 아니다 싶은 내용들이 많았지만 감히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었고 율이 되어 시원찮을 ABC협회가 슈퍼 감이 되어 사실상 지자체가 지급하는 행정 광고의 집행과정에 턱없는 수수료를 가로챈 셈이다.

1989년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ABC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신문 및 잡지를 비롯한 멀티미디어에서 광고 매체의 사용자 크기와 분포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만든 절차에 따라 만들어 협회에 등록된 언론사에 보고서를 배포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언제부턴가 ABC협회 부수 공시 결과가 정부 광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매체 선정 시 참고자료로 쓰인다는 내용과는 달리 부수조작의 의혹을 사면서부터 언론의 악어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연 16억원 가량의 회비에 부수공사 수수료와 상황에 따라 부수의 변동성(?)까지 부리는 작금의 사태는 사실상 문제부의 관리·감독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년이 넘도록 운영해 오던 협회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8일 한국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ABC협회의 부수 공시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업무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전국 5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주일 동안 열람한 신문과 정기구독을 조사해 광고 단가 결정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급변이 아니라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천지개벽이요 ABC협회와 한패가 되어 광고비를 해 먹던 일부 언론사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어차피 한번은 맞아야 할 때라면 일찍 맞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진작 터져야 할 게 늦었다는 느낌이다.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온 지면의 질적 향상과 경영상수지타산을 맞추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언론 자체가 공익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영리목적 배제 할 수도 지향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행정 광고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 광고지급 기준에 적시된 발행부수, 유료독자는 모든 언론사들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현실적인 동종업계의 서열이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흔히 말하는 요즘 누가 돈 주고 신문 보느냐는 질문에 벼어리자 된다.

매저지 신문에서 자전거, 상품권,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해가며 유료 독자 확보에 열을 올리는데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방 일간신문이 똑같이 나래다가는 거털 나기 딱 좋다.

독자들은 불만만 신문들 만들라고

발행인/최수진

경기도, 광명 7구역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기본주택 포함 7천호 공급 기대



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바탕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 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 계약이 체결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최광수/기자

도쿄올림픽 ‘온라인 코리아하우스’ 운영...선수단 응원·한국 홍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사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내의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www.teamkoreahouse.com) 이하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한옥을 본떠 만든 팀코리아하우스 누리집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경기 정보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

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현장 전사관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사관을 구성했다.

가상현실(VR) 전사관은 크게 인텔, 한국체육(K-Sports), 한국 문화(K-Culture), 한국 여행(K-Tiavel) 구역으로 이뤄져 있다.

인텔에서는 올림픽과 우리 선수단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한국 체육(K-Sports)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주요 올림픽 영웅들을 전시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정보 등

을 제공한다.

한국 문화(K-Culture) 구역에서는 한복, 한복, 전통악기 등 아름다운 한국 전통문화와 더불어 케이팝(K-Pop) 등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을 전시한다.

한국 여행(K-Tiavel) 구역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한국관광 100선, 관광거점 도시 등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네이비제페도와 협업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제작하고 확장 가상세계 속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접하고 축구, 야구,

수영 등 각종 올림픽 종목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쿄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올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팀코리아하우스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는 전초기지가 되길 희망한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팀코리아하우스를 찾아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응원하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 전 제시한 한국판 뉴딜,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임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화에 속도를 냈고,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고 한국판 뉴딜로 인한 변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판 뉴



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반 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 법도 제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 확대를 말하며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

책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말하며 "당정은 지난해 10월 말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을 선정하였는데 지금까지 16개가 입법이 완료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통합투자 세액 공제는 한시적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뉴딜 2.0의 총 투자규모가 60조 원 늘어남에 따라 직간접 일자리 효과도 종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4차 전략회의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를 발표자만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을 통한 현상발언 최소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기경위

“지방교부세 확보에 온힘 다해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데이터정책관, 충남개발공사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바르쓰기 도민감시단을 수년째 운영해오고 있지만 보조금 누수, 예산낭비 사례가 여전하다"며 "사업마다 수기로 정산은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총괄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에 따라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현안사업 등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도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채 기재액이 급증했다"며 "체계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민항, 삼교역사 시설 등 충청권 요구엔 무관심한 기재부가 가덕도신공항 등 타 시도에는 수조원을 배정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도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도는 그동안 석탄화력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인만큼 교부세 증액을 건의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며 "탄소중립 수요,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반영비율 확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이 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도록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정의당)은 "충청권 광역생활권(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내 균형발전이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체·대학 유치 등 산업경쟁력 향상부터 문화관광,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울러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메가시티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충남에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울·경을 비롯한 타 시도 사례와 충남의 면적, 교통접근성 등 여건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해 우리 도에 맞는 최선의 모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정화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13일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17년째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실증적 점유에 있어서도 명백

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하고, "일본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마저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알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일 간의 우호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

을 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본은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독도를 도발했지만, 우리정부는 실효적 지배논리를 앞세워 소극적으로만 대응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논리와 설득만으로는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을 분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침탈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방일은 취소해야 한다"고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민식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송파구, 자랑스러운 '송파구민'을 추천해주세요!

송파구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 만들기 기어 모범구민 및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송파구민상' 후보자를 오는 8월 10일까지 추천받는다.

'송파구민상'은 지역사회 전반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구민을 발굴하여 공로하는 시상제도로 올해 10회를 맞았다.

시상부문으로는 구민대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구민화합상, 교육·문화체육상, 지역경제활성화상, 시민사회단체상이 있다. 이중 구민대상은 각 분야별 후보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1명의 구민(또는 단체)을 선정한다.

추천대상은 공고일(2021. 7. 12.) 현재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다만, 교육·문화체육상, 지역경제활성화상, 시민사회단체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추천방법은 주민 10명 이상의 연명으로 거주지 관할 동장을 통해 공동추천하거나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자는 송파구 구민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며 기념패가 수여된다. 시상은 9월 송파구민의 날 기념 행사시 시상 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후보자 접수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추천서 등의 구



비서류를 작성하여 송파구 자치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양식은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올해 송파구민상을 통해 장기간 된 코로나19 위기로 지쳐있는 구민들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주변의 숨은 봉사자가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서울자원봉사센터, 안전한 배달문화 캠페인 '당신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 전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의욱)는 25개 자치구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370여개의 자원봉사캠프에서 지역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안녕캠페인 '당신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을 진행한 다.

이번 캠페인은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한 배달문화를 만드는 일상속 작은 실천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 빨리'라는 배달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라이더들의 과속과 잦은 신호위반은 지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당신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는 이번 캠페인은 배달 주문을 주로 이용하거나, 지역에서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고민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가까운 자치구자원봉사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캠페인에 활용되는 '안전 응원 스티커 키트'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자원봉사캠프를 통해 지역에 배포될 예정이며, 캠페인 참여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전 응원 스티커 키트는, 배달라이더들이 볼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문밖 초인종 위에 붙이는 '당신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 스티커 1매와 지역주민이 배달라이더들에게 전달하여 라이더의 안전한 실천을 독려하는 '안전운전 모두안전' 스티커 1매로 구성 되어 있다.

주민은 배달된 음식을 라이더로부터 받을 때 배달라이더에게 "안전운전하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 함께 스티커키트를 전달하고 자신의 활동을 SNS에 공유 할 때 "밥보다 안전",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도 같이 배달" 등 배달라이더를 위한 자신만의 메시지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캠페인 기간은 8월 13일(금)까지이며 SNS에 업로드 된 인증게시물 중 추천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광수/기자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제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서울 강북구가 4·19혁명 국민문화제 10주년에 앞서 기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1960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불의에 맞서 싸운 학생과 시민을 추모하고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2013년부터 시작해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다.

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4·19혁명 국민문화제'로 기념사업 주제를 정했다. 7월 1일자로 문화제 전담조직(T/F팀)을 신설하는 행정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국민문화제

가 지나온 길을 기록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기념사업의 핵심은 백서발간과 문화제 브랜드 사업이다. 백서에는 △연혁 △4·19혁명 세계화 등 주요성과 △ 프로그램 내용과 평가결과 등이 수록된다. 북쪽에는 행사 사진과 관계자,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다. 백서는 책자와 전자책 형태로 발간된다.

브랜드 사업은 기존 문화제 대표 이미지(CI) 외에 4·19혁명 정체성이 반영된 새로운 상표 이미지(BI),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캐릭터를 제작하는 작업이다. 국민문화제가 지닌 상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이를 활용해 4.19혁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친근함을 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4·19혁명 축제하면 바로 국민문화제가 떠오를 정도로 대표 보존행사도 자리매김한 상태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문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GS리테일, 폭염 속 취약계층에 나눔 실천



서대문구 총현동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GS리테일이 폭염 속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이달 14일 여름

나기 물품을 후원해 왔다고 밝혔다. 휴대용선풍기, 삼계탕, 전복죽, 비타민드링크, 생수 등 모두 8종류의 후원품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총현동 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지원된다.

기술원과 GS리테일은 올해 3월 '날씨경영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후원은 앞선 협약에 따른 민관협력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 관계자는 "어려운 주민 분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 2021년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 '동구사랑 나라사랑' 성료

인천동구청소년수련관이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한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 2회기 '동구사랑 나라사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동구사랑 나라사랑'은 호국보훈 관련 영상시청과 호국보훈 벽걸이시계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함으로써 청소년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기획되었던 다.

올해 '동구사랑 나라사랑'에 참여한 관내 청소년은 총 200여명으로 참여 청소년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호국보훈 벽걸이 시계를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보훈대상자

및 지역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여성가족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에 근거한 지역 중심 청소년 문화활동의 장이자 청소년과 마을이 함께 즐기는 자리로서, 2021년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롱(클라스가 남다른 다섯 가지 테마의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동구사랑 나라사랑'을 비롯한 동구청소년어울림마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유주/기자



은평구, '용기 내어 그린 은평' 캠페인 실시



은평구는 '용기 내어 그린 은평' 캠페인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기 내어 그린 은평'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지난 12월 시작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무포장 활동 기업 제로마켓과 함께 하였으며, 은평구 내 21개의 식당과 카페가 '용기 내는 가게'로 다회용기 사용 확산 캠페인에 동참한다.

'용기 내는 가게'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친환경 기념품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SNS에 해시태그 (#용기내어그린은평 #가게이름 #무포장 #제로웨이스트)와 함께 게시하면 용기내는 가게 어디서든 사용가능한 5천원 쿠폰을 증정한다.

조상순/기자

특히, '용기내는 가게' 중 쪼꼬, 유즈풀 커피, 커피빈치, 다용도실, 달냥, 더루쓰 등 6곳에서는 우유팩과 일회용 컵 등을 '은평그린모아모아'에 배출할 예정이다.

'은평그린모아모아'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직접 분리배출하는 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으로, 은평구 전역 160여 곳에서 운영중이다. 이렇게 모인 높은 품질의 재활용품은 별도의 선별 절차가 줄어 낮은 비용으로 재활용되므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들의 용기가 폐기물 위기를 자원순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환경도 살리고 골목 상권도 살리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동참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2021년 하반기 자원활동가 모집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동안 참여할 자원활동가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하는 자원활동가들은 8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인식 개선 캠페인 등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정기모임을 통해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역의 자원활동가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호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2021년 하반기 자원활동가 모집을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및 사회적으로 정착된 성의식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원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구로구, 어르신일자리 '드림나눔 공동작업장' 참여자 모집

구로구가 어르신일자리 활용을 위한 '드림나눔 공동작업장(가리봉동)' 사업 참여자 22명을 모집한다.

'드림나눔 공동작업장'은 가리봉동에 위치한 원원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종이백을 제작하는 활동이다.

26일부터 12월까지 주 2회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활동비는 월 34만

8000원 이상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 관내 주민은 21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구로시니어클럽(오류문화센터 3층)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

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5등급, 인지기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분야 경력, 세대 구성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 결과를 2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미성/기자



영등포구, 민선7기 구정성과 한 눈에 '탁트인 영등포, 100' 발간

영등포구가 민선7기 3년의 시간 동안 구민과 함께 이뤄낸 영등포의 변화와 성장, 대표 정책을 담은 구정 성과백서 '탁트인 영등포, 100'을 발간했다.

성과백서는 민선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3년간의 구정 운영 성과와 추진실적을 수록하여,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비전을 그려보고 향후 업무추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되었다.

아울러 5대 구정목표별 성과와 구민 인식조사 결과를 함께 수록하여 분야별 구민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구민과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정 성과백서는 총 300쪽 내외의 분량으로, '구민 삶을 변화시킨 정책 100'이라는 부제로 제작되었다.

구정목표와 운영 방향에 대한 소개를 담은 도입부에 이어, ▲ 한 눈에 보는 탁트인 영등포 ▲ 5대 분야 주요 성과 100선 ▲ 코로나19 대응 현장 기록 ▲ 탁트인 영등포 10대뉴스와 수상기록 등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개요, 주요 성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 '한 눈에 보는 탁트인 영등포'에서는 '민생현장 1,000일의 기록'과 '더 좋아진 구민생활지표', '새롭게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소개하며 구민과 함께

나눴던 소통협치의 시간과 구민이 체감하는 영등포의 변화 과정을 그렸다.

▲ '주요 성과 100선'에서는 교육·경제·주거·복지·민주 5대 분야의 주요 성과를 빠짐없이 담았다. 소통과 상생으로 이룬 영등포역 앞 노점 정비 사업과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조성 사업 등 영등포 구민의 숙원사업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선보인다.

또한, YDP미래평생학습관의 조성,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영등포터미고가 철거 및 상징공간 조성, 영등포 전통시장·청과시장 시설 현대화, 마든든센터(공동육아방) 확충 등 민선 7기 대표 사업의 성과와 변화 양상을 총망라했다.

아울러, 민선7기 들어 직접 발로 뛰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청소, 주차, 보행환경, 주거복지 등의 기초행정과 구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구정 운영 개선에 힘쓴 모습도 빠짐없이 담았다.

이 밖에도 보행친화거리 확대, 안양천 종합체육벨트 조성, 영등포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시동 등 구민이 직접 선정한 우수 정책인 ▲ '영등포 10대 뉴스'와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대통령 표창 등 149개 부문의 △대외평가 수상 내역도 소개하고 있다.

성과백서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영등포소개→영등포발자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백서에 담긴 하나하나의 성과는 모두 구민과 구정이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온 값진 노력의 결실"이라며, "지난 3년간 힘차게 걸어온 변화와 발전의 기록을 발판삼아, 코로나19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영등포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이태원관광특구 '스마트 상가'로 살린다

용산구, 중기부 '스마트 시범상가' 공모 선정

서울 용산구 이태원관광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 시범상가는 소상공인 점포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 매출 증대를 이끌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 상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가 내 스마트 사이니지(시범상가 내 상점 위치, 취급제품, 지역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장치)와 키오스크(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설치, 경영효율화 서비스, 스마트 오더(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도입 등이 있다.

사업 주관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회장 맹기훈)가 한다. 연합회, 상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스마트 기술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개선점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태원 상가에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접목,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 방문객 확대를 꾀한다"라며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지역 내 다른 상가에도 적극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시범상가 모집 공고를 냈다.구는 이태원관광특구 연합회와 함께 참여업체 30곳을 구성, 시범상가 운영 계획을 세웠으며 5월 신청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 평가가 이어졌



으며 이달 초 이태원관광특구를 포함한 전국 74곳 상가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성장한 용산구청장은 "스마트 정책이 지역 내 상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 발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상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외에도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 ▲소상공인 재난위기 극복 지원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공실 활용 '스타샵' 프로젝트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퀴논길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통해 이태원관광특구 일대 경기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태원관광특구는 서울시내 6개 관광특구 중 하나다. 이태원·한남동 일대 38만3292㎡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상가, 음식점, 관광호텔 등이 밀집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8군 기지에 주둔한 미군들을 상대로 기념품 장사를 했으며 1970년대 초반 121후송병원이 미8군 영내에 들어오면서 상권이 확대, 1997년 서울특별시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최만식/기자

강남구, 거리두기 4단계 맞아 '온라인 홈웨어 패션쇼' 개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카카오톡 '강남구청'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홈웨어 패션쇼' 이벤트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사적모임과 외출 자제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집에서 참여할 수 있는 패션쇼 이벤트를 기획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톡에서 '강남구청'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창에 홈웨어를 착용한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구는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며, 베스트 홈웨어 'TOP10'으로 선정된

참가자에게 2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기호 정책홍보실장은 "민선 7기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택트리더'답게 정순균 구청장이 직접 진행하는 코로나브리핑과 정책브리핑, 영상·사진아카이브 구축, 온택트행정시스템 독자 개발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달 무상으로 제공될 '미미위강남 이모티콘'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 추첨 결과는 이벤트 종료 후 강남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홍보실에 문의하면 된다.

정동희/기자

용진군, 해수욕장 개장 연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총력



용진군은 이번 달 16일부터 영흥면을 시작으로 관내 23개(해수욕장 8개소, 해변 15개소) 해수욕장 및 해변을 개장하기로 한 일정을 이번달 26일로 연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용진군은 해수욕장 및 해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객의 물리적인 분산을 위해 파라솔 및 텐트 등 차양시설은 코로나19 안심·안전거리 2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구획을 설치했고, 샤워장 및 화장실 등은 용진군 보건소 방역인력을 통해 매일 1~2회 이상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상안전요원 80명,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116명, 해수욕장

위탁 비영리단체 회원 등을 투입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발열검사, 손목밴드 착용, 안심품을 이용한 방문이력관리 등을 하고 지속적인 순찰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해수욕장 내 이동시 마스크 착용, 시설물 사용시 거리두기 준수, 음주 및 취식 금지, 현수막 게시 및 안내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관광문화진흥과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개장을 연기하게 되었지만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용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청정하고 안전한 용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양천구, 예방접종센터 접종 안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양천구는 예방접종센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접종정보 사전안내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KT의 'G보이스 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을 7월 중 도입하고, 향후 접종 이상반응 확인 서비스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G보이스 봇'은 AI가 접종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종정보를 음성대화형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접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원만 KT 서부법 인고객단장은 "KT의 인공지능 기술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KT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부평소방서, 주택 밀집지역 일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부평소방서는 14일 산곡동 주택밀집지역 일대에서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통한 소방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 8명, 주정차 단속 공무원 2명, 경찰공무원 2명 등 유관기관과 함께 훈련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화재 경각심 및 소방차 출동로에 대한 의식을 고취했다.

특히 이번 훈련을 실시한 산곡동 주

택밀집지역 일대에는 길가에 주차된 다수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애로사항이 많은 곳으로 가두안내방송을 통한 길 터주기 홍보 활동과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유봉열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작은 배려가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계양구,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자리에



인천서구, 폐기물 불법 행위 '매의 눈'으로 감시한다

스마트패트롤 드론 순찰대, 공중에서 특별단속 펼쳐

인천 서구가 폐기물 불법 행위를 막고자 스마트패트롤 드론 순찰대를 활용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중감시로 불법 행위를 초기 단계부터 뿌리 뽑아 환경오염을 막고 국제환경도시를 향해가는 서구의 발걸음에 힘을 신는다는 계획이다.

방치된 쓰레기가 쌓여 무려 170만 t에 달하는 거대한 산을 이뤘던 경북 의성. 국제적으로도 이슈화된 이 쓰레기를 치우기까지 1년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서구는 이와 같은 폐기물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중에서 폐기물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스마트패트롤(SmartPatrol) 드론 순찰대'를 운영 중이다.

최근 상황을 보자면 코로나19 장기화, 폐기물 업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폐기물처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처리금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받고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은 뒤 창고나 나대지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적치하는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행정 감시망을 피해 인적이 뜸한 지역을 몰래 뒤 높은 담장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고물상 등으로 위장해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거나 공장지대의 빈 창고에 적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이 대량으로 쌓이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 결국 '쓰레기 산'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서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공분야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을 전격 활용해 쓰레기 산이 발생하기 전,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내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화 화물차량이 접근하기 쉬운 공



터, 인적이 뜸한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감시 및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서구는 드론 순찰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경우, 투기행위자는 물론이고 운반차·배출차·현장 작업자 등 불법 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엄정히 실시해 원상복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최근 오류동 일원에 대해 드론순찰과 단속으로 '폐기물 보관 부적정',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재현 서구는 드론을 활용한 전방위적 감시로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해 서구가 환경이 최우선인 국제환경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가 폐기물 불법 행위를 막고자 스마트패

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행정 감시망을 피해 인적이 뜸한 지역을 몰래 뒤 높은 담장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고물상 등으로 위장해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거나 공장지대의 빈 창고에 적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이 대량으로 쌓이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 결국 '쓰레기 산'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서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공분야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을 전격 활용해 쓰레기 산이 발생하기 전,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내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화 화물차량이 접근하기 쉬운 공터, 인적이 뜸한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감시 및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서구는 드론 순찰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경우, 투기행위자는 물론이고 운반차·배출차·현장 작업자 등 불법 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엄정히 실시해 원상복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최근 오류동 일원에 대해 드론순찰과 단속으로 '폐기물 보관 부적정',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재현 서구는 드론을 활용한 전방위적 감시로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해 서구가 환경이 최우선인 국제환경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 제도·단속 현장대응반 구성

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하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과 계도 단속을 한다.

자정 이후는 재난상황실로 인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인해 인근 공원으로 음주 및 취식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동해해경, 암컷대게 등 불법 포획 어선 4척 검거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체장 9cm이하)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4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95마리와 포획 금지기간(6.1~11.30) 중인 대게 301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하던 A호 선장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도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B호와 C호, D호 등 3척을 적발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특히,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등원기자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지휘·명령 발령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 강화 업무지휘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제1호 지휘·명령으로 발령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

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지휘·명령을 의결하였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앞으로 전북경찰청에서도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행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조짐이 있고, 도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행정뿐 아니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일기자

광양시,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지정 및 단속 일정 예고



광양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적색노면 표지 40개소와, 교통 흐름이 복잡한 광양읍 덕례리 1806번 지선 도로(대림사거리), 광양읍 918-2번 지선 도로(자연어린이집 앞)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단속 일정을 행정예고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7월 7~27일(21일간)이며, 단속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 및 같은 해 8월 1일 동법 시행으로 인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 표시 65개소(기존 25, 신규 40)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부과한다.

시는 소방시설에 적색노면 표지를 할 수 있도록 광양소방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 지역 등 민원 발생이 잦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로 선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조기석기자

파주시, 공원 내 야간 음주 집중단속한다

파주시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7월 7일 22시부터 발효된 '공원구역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방안이다.

집중단속을 총괄하는 파주시 도시개발리본부는 행정명령 해제 전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파주시 지역 내 158개 공원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을 통해 홍보했다.

단속반은 도심 위주의 주요 단속권역과 기타 단속구역으로 구분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 및 각종 사회단체가 연계해 3인 1조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훈수 파주시 공원관리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고시... 사업 추진 '가속화'



양주시가 지난 12일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992,000㎡ 규모로 조성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508,000㎡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는 농업진흥구역은 검준일반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역개발을 막는 규제로서 은남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3,60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발맞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성호 양주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박재만·박태희 도의원,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 등 관계부처를 찾아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산업단지 적기 조성을 위한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

이 결과 은남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에 맞춰 사업대상지 내 편입된 농업진흥구역 전체가 해제됐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시화했다.

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복합물류기업을 ㈜로지스밸리와 국내 대표 생활용품기업 ㈜아성다이스 등과 MOU를 체결하고 전자·전기·기타기계·물류 등 10개 첨단 융합산업이 입주할 준비하고 있어 경기북부 산업·경제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동희기자

임병택 시흥시장 “코로나19 최대위기... 비상대응체계 돌입”

방역 위반 강력 대응 · 선제적 검사로 확산 저지

임병택 시흥시장이 “당면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위기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시장은 1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부서는 코로나19 비상대책체계를 구축해 유동성 있게 대응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시장은 보건소와 시민안전과,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관리하는 위생과와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전 부서에 감염자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4단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방역조치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시흥시는 우선 선제적 검사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 6일부터는 관내 노래방에 PCR 행

정명령을 발동해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가 주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사업자와 지역아동센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해 자체적으로 사전검사할 수 있도록 했고,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비롯해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시흥스마트허브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제적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어기는 경우에는 강력

대응한다. 시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에 대해 운영시간 및 인원 제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으로 인해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관내 공원에는 오후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임 시장은 “최근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 비중이 43.6%로 크게 증가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가 있었다”며 “접촉을 줄이고,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어 “4단계 격상으로 일상의 제약이 많아져 힘드시겠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 시흥시는 이번 4차 대유행을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정부기자

안양시, “90%가 긍정평가”... 시민 마음 사로잡은 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7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대 시민 광복 민생투어를 마무리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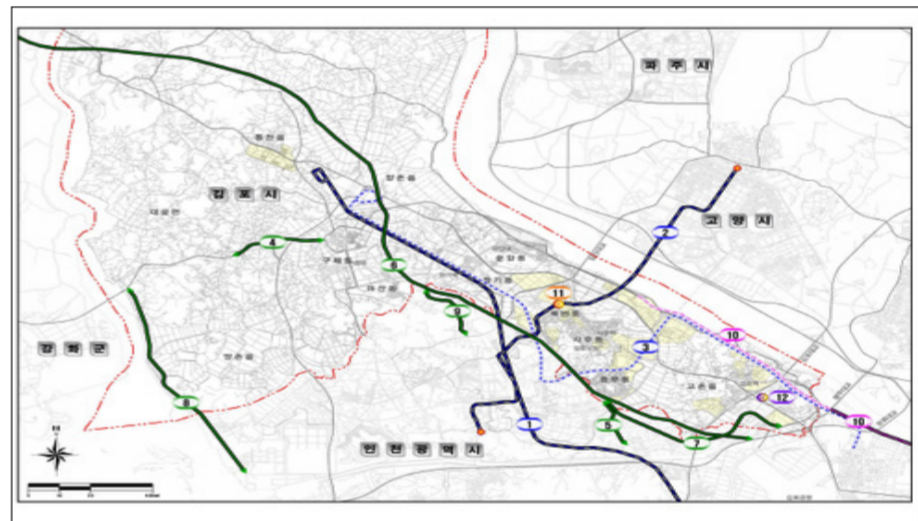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9일까지 현장체험과 민생탐방 등 내외에 걸친 26차례 특별한 만남을 이어왔다.

“다문화가정 부모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선7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 ‘미래세대와의 만남’ 등 3회의 간담회를 가졌고 ‘환경공무원 일일 현장 체험’,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현장 체험’, ‘새벽인력시장 방문’ 등 현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직접 체험에도 나섰다.

지난 5일 ‘노인종합복지관 무료 급식(대체식) 배부 봉사’를 시작으로 ‘안양시장에인재활자립작업장 현장 체험’, ‘저소득아동 쿠팡박스 지원 현장’, ‘4차산업혁명 첨단 기술 기업체 현장 방문’ 등 현장 위주의 행보를

원종균기자

김포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 확정



정부에서는 지난 9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을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단위(중기) 법정계획으로, 금번 4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과 광역교통시설 확충계획이 주된 내용이며, 그간 김포시에서는 도로·철도·환승시설 등 다양한 광역교통시설을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에 김포시 관련 확정된 시설으로는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각 2개 사업과 광역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각 1개 사업씩 총 7개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에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광역철도 분야에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 여의도·용산직결경로)와 ▲인천2호선 연장(인천서구~김포~고양일산서구) 등 2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서울5호선 연장(가칭 김포강한선)은 관련 지자체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 구간 신설과 함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TX-B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노선을 공유하여 여의도역, 용산역까지 직결운행하는 방안이 추진하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2호선 김포고양연장은 인천·김포·고양시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부지역 남북방향으로의 교통개선에 큰 힘이 될 노선으로, 김포북변역을 경유하여 킨텍스역 등을 연결하며, 킨텍스역에서 GTX-A로 환승하여 강남권으로의 이동편의가 향상된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타당성 분석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도로 분야에서는 ▲인천서구 거점도-약암리와 ▲검단-대곡(마산동) 간 광역도로가 반영되었으며, 지방도 356호선(양촌-대곶초지대교) 도로 확장 및 김포유원-인천장기간 장제로 확장(4~6)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인천·강화 등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출근시간 교통혼잡구간을 빠르게 통과하여 광역버스의 서비스수준 향상시키기 위한 ▲광역BRT 사업이 우선 올림픽대로(행주대교~당산역)에 건설되며 교통수준 증가와 현장여건에 따라 김포 고촌 한강시네폴리스까지 연장된다.

본 사업은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용하여 서울→김포 방향 1개 차선을 김포→서울 방향의 버스전용차로로 활용하는 사항으로 철도건설 이전 중기대역으로서 버스교통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환승센터와 공영차고지 분야에서도 ▲김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와 ▲김포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고촌물류단지인근)가 반영되어 인천2호선 및 김포골드라인 등과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도심지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반영 및 추가검토 등 미진한 사업은 국토부,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4.22(29) 국가철도 및 광역교통망 공청회 이후 시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김포시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국토부에서 조정·반영하게 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동희기자

동두천시, '희망나눔 행복드림' 나눔리더 인증패 전달



동두천시는 14일 시장실에서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랑의 열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나눔리더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나눔리더는 순종장학회 양순종 이사장으로 지난 6일 관내 저소득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 150만원을 후원하여 인증패를 전달했다.

특히, 양순종 이사장은 순종장학회 설립 후 15년간 150여명의 청소년에게 5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54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개인기부자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최만식기자

평택시, ‘통계·공공데이터 정보 한눈에’ 데이터 포털 서비스 제공

평택시는 시민들이 통계, 공공데이터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 데이터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오는 20일부터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포털은 평택시의 통계, 공공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통합해 제공하는 사이트로 통계연보 등 7개 분야 통계자료, 공공데이터 90종, 평택시 데이터 분석 사례, 행정지도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차트, 위치정보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의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관련자료 전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데이터 포털을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 공공데이터 및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이천시장호원읍 승격 80주년, 장호원이 다시 도약한다

1941년 10월 장호원읍으로 승격됐다. 올해 읍 승격 80주년을 맞는 장호원읍이 다시 도약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도권권비계획법 등 중점규제로 인해 옆 동네인 음성군 감곡면에는 대학교와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등 수도권 역차별의 표본으로 등극했던 장호원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민선 7기 임태준호가 출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호원과 이천 남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갈 곳을 찾던 우한교민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장호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도록 하자 경기도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100여억 원을 약속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됐다.

수도권 역차별로 이천시에서도 소외지역으로 평가받으면서 변변한 문화시설과 스포츠센터가 없던 장호원에 300여억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회관과 스포츠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민선 7기 임태준호는 남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난 2월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100억 원의 도비지원을 약속받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며, 이천시는 부지와 건립재원을 확보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이천시 장호원을 장호원리에 연면적 7891㎡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영장(25m×6레인)과 공인장(300석), 체력단련실, 전시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장호원읍 진암리근공원 인근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경기도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시설인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이 건설된다. 시는 '땅으로 치유하는 경기마음건강케어팜 조성사업'을 통해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특별조정교부금 50여억 원을 확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균형특별사업 교부금 지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 마음건강 케어팜 사업이 완료되면 장호원읍을 비롯한 이천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주변 농업인과의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55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재건축하는 한편 장호원을 포함한 읍면과 실성면 이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430억 원을 투입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성남-장호원을 잇기로 했던 자동차 전용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일부구간만 개통된 채 사업자체

가 무산됐다. 장호원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던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는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설득과 건의로 전 구간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된다.

부활에서 중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 철도 역시 연내에 중주까지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어 우선 개통될 예정이다. 또 136억 원을 투입해 노탑리와 오남리, 장호원중고등학교, 진암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황1리와 선읍2리를 잇는 시도14호선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112억 원을 투입한 와현1리-풍계3리간 시도 16호선 확포장공사가 내년이면 마무리된다.

장호원 각종 도로망 확충에 이어 오랜 기간동안 골칫거리로 남아 있던 장호원터미널 문제가 해결된다. 시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각종 민원을 야기했던 장호원터미널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장호원읍민 주민간담회를 열고 장호원터미널신규 이전 타당성 용역을 완료

했다. 이후 공영차고지와 환승주차장 등을 포함한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를 결정하고 장호원읍 장호원리 176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하고 공사를 진행,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와 함께 대로변 빈 점포, 노후 상점과 소극적 운영에 대한 지역현안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생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장호원 터미널마을'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환경 정비 행복만들기, 지역경제역량강화 같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같이 만들기를 전략계획으로 삼고 추진하게 된다.

장호원지역 지도가 바뀔 전망이다. 지난해 장호원 진암지구에 452세대 주택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던데 이어 장호원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620세대 규모의 장호원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도시주택공사는 2021년 6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착공해 2024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호원 진암지구 452세대 주택공급을 포함하면 장호원지역에 1072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장호원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도시발전이 정체됐던 남부권의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부권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건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연수원, 남이전 산업단지 조성, 장호원교통복합시설 준공 등을 통해 남부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용/기자

광명시,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미용실, 음식점 등 100여 개 업소 할인 혜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광명 시민은 관내 전통시장, 미용실, 음식점 등 100여 개 업소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 달부터 백신접종 시민에게 광명동굴 입장료, 공공체육시설 이용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고자 관내 소상공인들도 인센티브 지원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크로앙스 상인회,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명시지부와 '예방접종 인센티브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항기 광명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전덕배 광명 새마을시장 상인회 대표, 김영애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대표, 나상준 한국외식업 중앙회 광명시지부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은 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에서 7월 중 일주일 동안 5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5000원을 은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크로앙스 상인회도 48개 업소에서 7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사은품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7월, 8월 두 달 간 관내 미용실 50개소에서 펌과 염색 시 10% 할인 혜택, 음식점 7개소에서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점주자를 대상으로 전 메뉴 1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명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종이증명서는 점주센터나 점주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센티브 지원에 협조해 주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7월 13일 기준 1차 접종 27.8%, 2차 접종 9%를 완료했으며, 이달 26일부터 50대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으로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구리시,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국도비 16억 원 추가 확보

구리시는 수택동 검배공원 일원에 조성하는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재원으로 지난해 교부받은 지원금 59억원에 더해 2021년도 특별교부세 6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택동 산1-1번지 일원 검배 공원 내에 건립 추진 중인 검배 문화체육센터는 연면적 5,362㎡, 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다

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시민건강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예정으로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총 167억원의 예산 중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 공모에서 교부받은 49억원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지원금 10억원에 더해 올해 ▲특별교부세 6억원 ▲특별조

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건립 재원 중 국도비로 75억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안승남 시장은 "교부받은 국도비를 통해 '검배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시설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 관련 방역 대책 회의 개최

지난 13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방역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방역 상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공단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공단 운영과 관련한 부서별 대책 방안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임혜명 이사장은 방역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유행은 개인 간의

접촉으로 인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4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율방재단을 운영 중이며, 시설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정명령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ZOOM

영양군
YEONGYANG-GUN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길

삼과 숲이 모여서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영양길 8000년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 천문대
8000년 역사를 품고

맛

사백년 역사를 품고
진정 영양 맛
영양 떡볶이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영양 연소장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공원, 축복마을,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해늘보호공원, 반달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계수석야생화전시관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CITIUSLOW
성태관광

제21회 대구시민원탁회의 개최

15일 오후 7시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



대구시는 7월 15일 오후 7시 '변화하는 시대! 인재를 키우는 도시, 청년이 모이는 대구'를 주제로 비대면 화상토론(ZOOM)으로 대구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제21회 대구시민원탁회의)을 통해 생중계한다.

제21회 대구시민원탁회의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전면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경제성장 저해, 일자리 감소 등 구조적인 악순환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청년층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인재를 키우는 역동적인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대학, 청년, 시민사회, 지자체 등 지역의 주체별 실천과제에 대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다음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 주거, 지역네트워크, 문화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독창적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원탁회의에 앞서 토론 과제 확인과 토론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과 원탁회의의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도시 실태', '청년 정책방향', '대구가 지향할 인재도시'에 대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37명)

설문조사 결과 청년이 대구를 떠나는 주요 이유로 응답자의 71%가 일자리를 언급했고, 청년이 머무는 대구를 위해 질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창의적', '인성', '소통'의 키워드를 가장 많이 표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의 이동은 지역위기로 다가온다. 열린 기회를 가진 도시, 세대간의 기대와 믿음을 존중하는 도시 문화 조성을 통해 청년을 품을 수 있는 시민 모두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경주시, 중국 난핑시와 온라인 '우호도시 협정' 체결

코로나 위기 속 짝튼 우정, 온라인 우호도시 협정 체결 꽃피워...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류가 힘든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를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13일 중국 난핑시와 온라인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 체결식에는 주남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이원식 前 시장, 최기환 경주향교 전교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중국 푸젠성(福建省) 북부에 위치한 난핑시는 회암 주희의 고향으로 그가 성리학을 집대성한 곳으로 유명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이산(武夷山)과 같은 빼어난 자연과 우이정사(武夷精舍)로 대표되는 인문학적 토대를 두루 갖춘 세계적 관광명소이다.

경주시는 지난 2016년에 동국대학교의 제안으로 난핑시와 유교문화 교류의 물꼬를 튼 이후 경주 양동마을-난핑 우부전(五夫鎮)마을 교류협정 체결, 한·중 성리학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 2019년 8월에 우호교류의 향사에 서명한 양 도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난핑시의 방역물품 지원, 경주시의 코로나19 극복 응원영

상 발송 등 비대면 교류를 지속해왔다.

이 같은 우호적 교류의 결과로 이번에 양 도시 간 온라인 협정이 성사됐다.

주남영 경주시장은 "이번 우호도시 협정 체결은 내년 한중수교 30주

년을 앞두고 양국과 양 도시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안차오훙 난핑시장은 "앞으로 양 도시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해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중 우호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와 난핑시는 상호 공무원 연수과연, 청소년 교류 등 인적 교류 추진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선진 분야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11개국 18개 자매우호도시와 시장 온라인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협력팀 페이스북을 통해 자매우호도시 랜선 투어를 실시하는 등 온택트 방식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울릉군↔롯데백화점 대구점 농수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릉군은 2021년 7월 13일,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와 서용석 롯데백화점 대구점장이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울릉군 농·수특산물 판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 양자가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사업을 동참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는 울릉도 특산물 판매전을 개최 하게 된다.

서용석 롯데백화점 대구점장은 무

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울릉군 청정 농·수특산물을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울릉군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나간다고 말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롯데백화점 대구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울릉군의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이 대형 유통업체에 안정적으로 납품되는 계기가 되어 울릉군 농·어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병수 울릉군수는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신홍승 경상북도 기술원장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



하여 울릉군 농업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2022년 농업분야의

국비지원 사업을 건의했다.

김기현기자

상주시,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상주시는 7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상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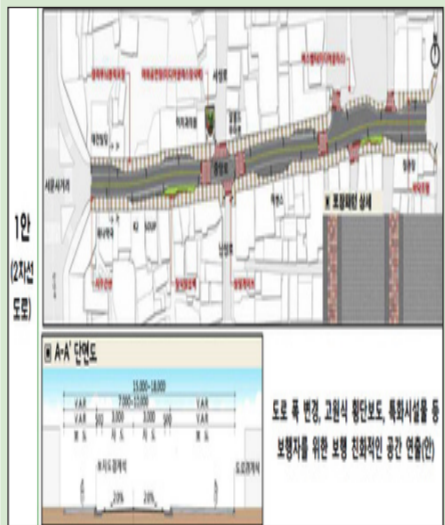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구간은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 270m 구간이다.

설명회에는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대에 『상주시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로 도로광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반식기자



안동시, 50대 연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재개!



안동시는 14일 오후 8시부터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사전예약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사전예약 후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이며, 추진단은 3분기 중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 물량이 50대 연령층 1·2차 접종을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백신 공급일정과 물량에 따라 접종일정 등이 일부 변동될 수 있어, 시는 백신 수급상황과 접종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50대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은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은 7월 14일 오후 8시부터 재개하여 7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된다.

아울러 60~74세 고령층 대상군 중 사전예약 기간(5.6~6.3) 내 예약 후 긴급 상 이유, 예약연기·변경방법 미숙시 등의 이유로 예약 취소·연기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과 접종도 55~59세 연령층과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50~54세 연령층은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산하여 예약을 시행하게 되는데, 53~54세(67~68년)는 7월 19일 오후 8시부터, 50~52세(69~71년)는 7월 20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을 시작하고 접종은 8월 16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된다.

7월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의 연령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한 본인·대리인 예약이 가능하고 펄링 콜센터 전화예약,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펄링 09시-18시) 가능, 점심시간(12시-13시)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에서 가능하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자 중 일부에서 2차 접종 일정이 허가기준인 4주가 아닌 6주 이후로 안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약자들이 허가기준인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일괄 조정할 예정이며, 조정된 접종일정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1호기 최초 연료장전 행사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신한울1호기 최초 연료 장전 행사를 개최했다. 연료장전은 원자로에 원전연료를 채

우는 것으로, 신한울1호기는 총 241 다발의 연료가 장전될 예정이다.

신한울1호기는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했으며, 규제기관의 사전 검사를 마치고 앞으로 약 8개월간의 시운전시험을 거쳐 22년 3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운전시험 기간 신한울1호기는 정상 운전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필수설비의 동작을 확인하는 각종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설비용량 1400MW급인 신한울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전이자 UAE에 수출한 원전과 동일한 APR1400 노

형이다. APR1400은 국내에 신고리 3,4호기가 가동중이며, 2018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특히 신한울 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설비 국산화를 통해 기술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발전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별로 발전소 출력을 상승하면서 종합적인 최종 검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경산시, 국비 2,008억원(3개소 총사업비 4,016) 광역도로 선정

경산시는 영남대학교와 지방도919 호선을 연결하는 대학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자 2020년 1월에 신청한 「대구시계-압랑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2021년 7월 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48호) 선정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23년부터 착공(2027년 개통 예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시계-압랑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총사업비 890억원(국비 445억원, L=5.0km, 4차로)로 선정됨에 따라 대학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량을 분산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향후 대입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대구 안심-경산 임당 광역

도로 개설사업」총사업비 806억 원(국비 403억원, L=3.1km, 4차로)과 「대구 방촌-경산 대정 광역도로 개설사업」총사업비 2,320억 원(국비 1,160억원, L=8.0km, 4차로)이 선정됨에 따라 우리 시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이 추가되며 도로 이용자의 통행 편의 제공 및 교통량 분산에 따라 우리 시 북동권역(압랑·진량)의 개발이 한층 더 가속화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년 7월 9일)」에 반영된 3개소 광역도로 선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 대구광역시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동서축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건설행정추진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중구, 도심 속 힐링 공간... 입화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개장 임박

멀리 떠나지 않고도 도심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 울산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별뜨락)'이 오는 20일 개장한다.

울산 중구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별뜨락) 정식 개장을 앞두고 14일 오전 11시 입화산 자연휴양림(다운동 5번지 일원)에서 기자단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완 중구청장과 중구청 관계 공무원, 중구청 출입기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과정 및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카라반 숙박시설(별뜨락)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다운동 5번지 일원에 위치해 도심에서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심형 휴양 시설로 야영장 42면과 모노레일, 주차장 등 기존 시설에 이어 이번에 이동식 카라반 9동을 추가로 갖추게 되었다.

전체 규모는 38만 291㎡(38ha)로 시설 면적은 기존 야영장과 모노레일 6,303㎡에 이번에 조성된 카라반 숙박시설 3,649㎡를 합쳐 총 9,952㎡이다.

지난 2016년 8월 자연휴양림 지정 후 2020년 8월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7월 준공됐으며, 지금까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사업비 총 43억여 원이 투입됐다.

특히, 이번에 조성한 이동식 카라



반은 폭 3.2m, 전장 10.4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이동식 주택으로 정원 8명(성인 6명, 유아 2명)이 이용할 수 있다.

카라반마다 작은 마당이 딸려있어 전원주택 같은 하나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큰방 침실에는 창문이 달려 있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다.

또 '한글 도시' 중구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각각의 카라반은 큰곰별, 불박이별, 다슴별 등 순우리말 별자리 이름으로 되어있다.

울산 중구는 방문객들을 위해 숲해설 프로그램과 과수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카라반 숙박시설(별뜨락)은 오는 21일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예약은 야영장 홈페이지 또는 현장 결제를 통해 가능하며 중구 구민 및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 계층은 이용 요금의 30%, 울산 시민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이번에 문을 연 입화산 자연휴양림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남해군-한국토지주택공사, '내 빛길로(路) 조성'

남해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설천면 내곡·덕신 2개 마을에서 'LH 빛길로(路) 조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LH 빛길로(路) 조성' 사업은 길이 협소하고 어두워 밤길 보행이 어려운 마을 2~3 곳을 선정하여 태양광 LED 부착등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가정의 노후된 방충망 교체를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남해군과 LH가 지난 2017년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5년째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이다.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LED 등은 낮 시간대에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충전한 뒤 어두워지는 야간에 점등되는 방식이다.

전기가 완충되면 구름이 질거나 비가 오는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시간 불빛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0일에는 남해군자원봉사센터와 남해정실회가 함께 가로등 기둥을 설치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했고, 14일에는 덕신마을회관에서 장충남 남해군수, LH 조하영 처장과 임직원 35명과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정준업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설천면장, 남해정실회,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LED 부착등 및 가로등 설치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부착등 14개와 가로등 21개를 설치 완료하여 어두웠던 마을 안길 곳곳을 밝히며 생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2017년 첫 활동부터 지난해까지 남해, 남해읍, 창선면, 서면 4개 읍·면의 10개 마을에 태양광LED 부착등 111개, 가로등 58개가 설치됐다. 노후 방충망은 135가구, 391개가 교체되었다.

LH 조하영 처장은 " 벌써 5년째 남해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빛길로 조성 사업은 안전한 통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 의미가 특별하다"며, "오늘의 활동으로 남해군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작은 태양광 LED 등 하나가 보행자의 야간통행 불편

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지역주민의 호응도 높다"며, "오늘 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남해군 가꾸기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해군 전역을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7일에는 남해정실회와 함께 설천면 전 마을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세대 60가구를 대상으로 250여개의 낡은 방충망을 교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8월 중에는 구간 설치했던 LED 부착등과 가로등을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민·관·경 협력 강화

경상남도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민·관·경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14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교육청, 경남경찰청,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1366경남센터, ㈜에스원 경남사업팀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훈 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지난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관·경이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여성

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를 신규 개소·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과 불법카메라 체형설 및 가상현실(VR) 체험구역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구축된 민·관·경 협력체계를 통해 ▲1366경남센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신고·상담 및 피해자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남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체계 구축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각 기관에서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거창군, 2021년 하반기 농업·농촌발전 간담회 개최



거창군은 지난 13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농업인단체회장, 관련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미래지향적 농업, 잘사는 농민·농촌'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짚어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구인모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사고 저온피해 대응, 농업인 수당 지급

등 그동안의 농정 성과를 통해 농민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없어졌으면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농촌의 고령화, 여성의 농업참여, 농기계, 인력부족, 새로운 소득 작목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군은 건의된 내용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장단기 과제로 검토 반영할 계획이다.

장병철/기자

통영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2차) 50만원 지급

통영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 경상남도와 함께 지난 2월 지급하였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1.7.14.) 전일까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으로서, 지난 2월 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은 문화예술인과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난 2월 지원 기준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예술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단, 증명서 제출 완료시 지원금 지급)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예술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활동지원비는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영시 문화예술과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 이러한 접수가 어려울 경우 방문 접

수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 지난 2월에 추진했던 사업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재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지역문화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동부산에 이어 서부산 지역에도 산업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기반 마련!

서부산지역에 부품산업기업, 근로자,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센터가 문을 연다.

부산시는 7월 15일 오후 4시 사하구(하단역 인근)에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가 올해 4월 고용노동부 최대 국비 공모 일자리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부산지역에 일자리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운영기관:부산경제진흥원)는 부품산업의 위기로 고용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서부산지역 부품산업기업과 근로자·구직자에 대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사업비 15억 원(구축비 2억원,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단역 2번출구 인근) 건물의 3층에 설치하였다.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만의 특화된 서비스로는 ▲면접스타일링 ▲직업적성검사(일자리미스매치 해소 프로그램) ▲기업탐방 ▲취업정보 제작 심리상담 및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특히, 서부산권 부품산업 기업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고용장려금(3백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한다.

오늘 개소식은 이준승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장, 부산경제진흥원 박주완 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고, 같은 공간 내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총괄 운영 사무국인 「서부산 고용안정 추진단」의 발대식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는 같은 건물 8~10층에 입주해 있는 「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부산지방고용노동청)와 연계·협업하여 원스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부산시의 최대 일자리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서부산권 부품산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406.5억 원을 투입하여, 6,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첫해인 2021년에는



81.3억을 투입해 3개 프로젝트, 9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1,11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①기계부품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운영 지원(67개 사, 기업당 1,200만 원) ▲수출 지원(34개 사, 기업당 2,500만 원) ▲근로환경개선비(24개 사, 기업당 2,500만 원)와 컨설팅 ▲친환경부품산업 기업(진입 희망기업 포함)의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69개 사, 기업당 2,000만 원) ②근로자, 실직자에게는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과 전문기술훈련(10개 과정)을 제공하여 신규취업과 이직직을 지원한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서부산권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거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의 '일자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4월에 개소한 동부산권역의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시민분들에게 보다 가까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아울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시너지를 발휘해, 부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서부산권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모델을 부산시가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남영기/기자

전북도, 도내 전체 사적모임 8인까지로 제한

송하진 지사, '지금 멈추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상황, 긴장의 고삐 당겨야'



전라북도는 7월 15일부터 도내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되,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에만 적용했던 '사적 모임 8인까지' 제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 조정을 추진하되, 수도권처럼 선제적인 단계 격상과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권고하였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월 7일부터 전국 1천명 이상이 8일째 발생 중이고, 최근 1주간(7.4.~7.10.) 일 평균 992명으로 전주 665명 대비 51.5% 증가하였고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

현재 4차 대유행은 수도권 20~40대를 기점으로 한 급격한 환자 증가세,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7.1.~)으로 사적모임 증가와 방역긴장도 완화, 하절기 에어컨 사용증가로 3밀 시설형성에 따른 환기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휴가철 이동량 증가,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지연에 따른 무증상 감염자 지역 방문으로 인한 N차 감염,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도 전국적 유행의 원인이다.

특히 7월 12일부터 시행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모임·만남이 불가능해지자, 수도권을 피해 비수도권으로 이동해서 만나는 풍선효과가 충남, 강원에서 현실화되었고 일일생활권인 전라북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내 발생 확진자는 6월 일 평균 환자 4.6명, 일상에서 소규모 감염만 있어 안정세였으나, 수도권 환자 급증에 따른 무증상 감염자와 N차 감염 등으로 7월 일 평균 7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과 정읍과 남원에서 변이바이러스 검출 등 지역내 감염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도내 전체에 1단계를 적용하되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지역에 사적모임을 8인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래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으나 7월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7월 25일까지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한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도내 14개 시·군별로 환자 발생상황이 다르지만 전북도가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고려하여 현재 시행 중인 사적모임 제한 강화를 건의하였고, 시군이 이를 어렵게 수용하여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수도권과 지역의 유행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급일 대도민 방역 동참을 호소하면서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당겨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지난 1년 반의 고동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4차 대유행 차단에 총력을 쏟을 것이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일/기자

장성군, 방역고삐 단단히 잡는다

휴가철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백신 접종 확대, 관광지 방역 철저



장성군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이달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가장 먼저 강조된 부분은 개인 방역수칙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말했다. 또 사적인 모임은 8명, 행사 및 집회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며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타 지역 방문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7. 10 ~ 7. 31(3주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집중한다. 장성군은 9월 말까지 전 군민의 70%인 3만 1000여명이 1차 접종을 마친 것을 목표로 전화, 문자, 우편, 읍·면 이·동장 등을 통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시작(19~20일)으로, 50~59세는 19~24일에 사전 예약을 받는다. 자치단체 자율접종 대상인 운수업자와 환경미화원, 택배원, 검침원, 학원강사, 종교단체 관계자 등의 직업군은 19~28일 사전 예약 후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사용될 예정이다. 18~49세 주민은 8월 중에 접종을 시작한다.

백신 예약은 보건소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위탁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성군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격격리 면제, 경로당 이용 등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강릉과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길 등 장성의 대표 관광지는 다수의 외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이행 점검에 나선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을 이어가고 물류창고,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일일 점검을 펼친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심콜(call) 출입관리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안심콜은 시설마다 고유의 전화번호를 부여해 방문자가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료는 전액 장성군이 부담한다. 지금까지 식당·카페, 이·미용업, 민간체육시설 등 413개 업소가 등록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군도 함께 휴가철을 맞아 더욱 촘촘한 방역방을 구축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익산시, 정치권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중앙동 피해 현장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중앙동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13일 중앙동 일일 수해 현장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포함해 정희용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병기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현황과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소상공인으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익산시 동행의원인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다른 일행보다 이른 시간에 익산에 도착해 익산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시는 이번 피해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2일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과 지역 주민,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막심한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중앙동 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GMB TV 1층 사무실 등 2곳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재난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 또 용자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희망장터'를 운영하며 장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디아로움 카드로 결제할 경우 총 30%의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수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성금모금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피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만나면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었다"며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침수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군산시, 고품질쌀 생산 위해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 당부



군산시는 고품질 군산쌀 안정생산을 위해 벼 이삭거름의 적기·적량시용과 관련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에 효과를 보기 위한 웃거름으로 일반재배의 경우 이삭이 나오기(출수기) 25일 전,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15일 전에 주는 것이 적당하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벼 영양생장기간 일조시간이 전년 대비 8.1시간이 길었고 적산온도는 13도 정도 높았던 기상분석 자료에 따라 군산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의 경우 1모작 기준으로 오는 8월 15일경에 출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이삭거름 적기는 7월 30일 ~ 8월 1일경이다.

벼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등숙불량 및 도복에 약하고 늦어지면 목도열병 또는 이삭도열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도복, 수량, 미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 시용이 중요하다.

비료량은 시에서 공급하는 맞춤형 비료 기준으로 10a당 15kg 내외로 과비가 되지 않도록 시용하며, 밀거름 시용량이 많아 잎색이 짙은 논은 표준시비 기간보다 일주일정도 늦추어 주고 염화加里만 10a당 3~4kg를 시비하며, 완효성 비료를 사용한 논은 이삭거름을 생략해도 된다.

이삭패기(출수기) 전 25일부터 이삭패 후 10일까지는 벼가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논물을 2~4cm 깊이로 걸러대기를 실시해 뿌리의 활력을 높여 줘야 하며, 장마철 잦은 강우로 벼가 웃자라거나 약해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흑명나방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용 약제로 종합방제를 해야 한다.

김현태/기자

보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시작



보성군이 여성 청소년을 위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상품권'을 1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상품권' 지원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를 제공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시행되며, 지난 6월부터 만16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지급금액은 매월 11,500원이며,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103,500원)을 지급받는다. 내년부터는 12개월분(138,000원)이 지급되며, 1차 신청인원은 240명이다. 신청기간 내 미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되며 관내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올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내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지원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신규시책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리용품 때문에 매월 고민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올해 만16세~만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범운영 후, 중학생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만/기자

강진 수국 500송이, 국내 최초 싱가포르 수출길 열다

코로나19 속에서 항공 수출길 개척, 강진 화훼산업 위기를 기회로

강진군은 지난 13일 그린화훼 수국 재배 법인 회원과 군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국내 최초 수국 싱가포르 수출 상차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소화해 진행됐다.

강진 수국은 국내 수국 생산량의 약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와 일본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시장까지 축소돼 강진 수국 생산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그린화훼 영농법인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수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 시험 수출했으며 현재 유통·저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수국의 지속적인 항공 수출을 위해서는 운송료 절감과 장시간의 운송시간 중 신선도 유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승우 강진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면서 강진의 많은 화훼 농가들이 힘든시간을 지냈지만, 온라인 직거래 유통시장 개척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며 "수국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강진 화훼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이날 신청된 강진수국 500송이는 싱가포르의 고급호텔과 국제행사장에서 사용된다.

익산시, 정치권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전주시·전북은행, 탄소중립 '맞손'

정현울 익산시장이 중앙동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13일 중앙동 일원 수해 현장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포함해 정희용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병기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현황과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소상공인으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익산시 동행의원인 양금희(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다른 일행보다 이른 시간에 익산에 도착해 익산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시는 이번 피해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2일 환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과 지역 주민,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막심한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중앙동 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GMB TV 1층 사무실 등 2곳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재난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 또 용자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희망장터'를 운영하며 장터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이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총 30%의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수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성금모금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피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만나면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었다"며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울 시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집수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전주시가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로 선언한 가운데 지역 거점은행인 전북은행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 금리우대 등을 통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13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전북은행 탄소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시범사업 추진 △에너지 서비스 지원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실천 △석탄 금융 축소와 기후금융 확산 △ESG 사업 추진 시 전주시 탄소중립 사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기후 액션 플랜(Climate Action Plan)'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이행사항들을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의 추진 계획에 발맞춰 전북은행은 영업점별로 태양광 시설을 갖추고 본점 주차장 내에는 올 연말까지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서 법인 리스차량들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또 건물 신축 시 에너지효율화 시스템(BEMS)을 설치하고 모든 전등은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단열시설을 보강하는 등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

김승일기자

'코로나19, 맘과 맘을 잇다' '제16회 전남교육 희망포럼' 16일 오후 2시 개최

신안군 해수욕장 축소 운영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우려 불가피 15개소 중 9개소만 개장

제16회 전남교육 희망포럼

코로나19, 맘과 맘을 잇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2021. 7. 16(금) 14:00 ~ 17:00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

장가를 희망하는 교육가족 누구나

2021. 7. 16(금) 14:00 ~ 17:00

주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나 팬데믹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포럼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의 '우리가 놓친 아이들의 마음보고서'라는 발제에 이어 순천대학교 임경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에서는 4명의 패널이 참여해 각자 처한 입장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일상의 변화는 무엇이며, 정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게 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참여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채널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찬길 소장은 "이번 포럼의 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심리 지원방안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리 안정망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에는 '기후위기와 생태전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남교육 희망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김영안기자

신안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변이바이러스, 여름 휴가철 등 대외적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안군 관내 해수욕장을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안군 지정해수욕장 15개소 중 흑산 흥도해수욕장을 제외한 증도 짙뚱어해수욕장 등 14개소를 개장·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미개장 해수욕장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9개소로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개장 해수욕장은 증도 우전 해수욕장을 포함한 9개소이며 미개장 해수욕장은 증도 짙뚱어해수욕장 등 6

개소로 이중 자은 백길 해수욕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해수욕장 축소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인데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더라도 방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발열체크, 안심콜 시행 등 개장 해수욕장과 동일한 대응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오는 피서객을 막지는 않을 것이며 개장을 하지 않더라도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니 이번 조치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객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기석기자



'제16회 전남교육 희망포럼'이 '코로나19, 맘과 맘을 잇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7월 16일(금) 오후 2시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정찬길)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을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유아맘 : 대단하심...
벚꽃엔딩 : 맛집 오픈하셔...
찌니 : 남원의 맛~ 기대 됨!
꿈꾸는남남 : 남원으로 가즈아!

“재활용도 하고, 기부도 하고, 도청정원에서 공유마켓 행사”



충북도는 기후천사 네트워크인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공유마켓 라다크와 함께 7.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충북도청 정원에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실현 및 소외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공유마켓 행사를 연다.

이번 공유마켓 행사는 가정 내 폐기물 발생 및 일회용품 줄이는 등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차원의 행사이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소형전자 제품 등을 교환하거나 기부하고, 다회용컵 사용 일상화를 위해 텀블러 소지자에게 커피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공유마켓 '라다크'는 물품 나눔시 가격을 책정해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공유마켓 라다크 매장(청주 가덕면 소재)에서 물건 및 커피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라다크 화폐를 제공하며, 라다크 화폐의 50%는 자동으로 기부된다.

이와 함께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미세먼지 줄이기 아트작품 만들기 축제1회 푸른하늘의 날 기념 사진공

모전 당선작 전시 △새활용 공예 작품 전시 △참가자 장바구니(최대 기부자 20명) 증정 △순수건 및 마스크 증정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공유마켓에서 모아진 기부금 등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는 등 생활쓰레기 발생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원순환과 폐기물 감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주 외 지역에서도 행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 분위기 활성화를 깨닫는 충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아산시, 시민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문화사업에 행정역량 집중

13일 아산시 윤연옥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교육·문화사업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알렸다.

윤연옥 소장은 “2021년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었고 아산 외암민속마을은 문체부 주관 ‘2021~2022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임시 휴관과 부분 운영을 반복하며 시민들이 이전의 교육·문화생활에 직접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소장은 “현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평생학습관 이하 모든 시설을 전면 또는 부분 운영 중이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만큼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현재 아산시는 대규모 직업 공공도서관 6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3개 공공도서관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2022년 ‘음봉복합문화센터 도서관’, 2023년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월전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설문조사 및 시민 설계서포터즈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소통 중심으로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선장분원을 운영중으로 2028년까지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둔포·신장면)를 확충할 예정이다. 나아가 중장기적 목표로 각 지역별 청소년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는 각 읍·면·동별 주



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신장면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을 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각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여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양·취미, 기술·공예, 전문자격증 등 평생학습관 정규강좌를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도서관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해 교육, 평생학습동아리, 각종 아카데미 강연 및 기획공연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강연과 문화공연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힐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민선 7기 교육관련 6대 주요 핵심과제로 청소년재단 설립, 진로코칭센터 설립,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 글로벌 인재 양성, 아산시 미래전략회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설립된 미래장학회는 그동안 학생 5,713명에게 장학금 95억 2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년도부터 고교 신입생 교복지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을 비롯해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 충남 유일 ‘아산 시민참여학교’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7년 충남 최초로 인증받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금년 9월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산시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찾아가는 문해교실,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부터 어르신까지, 아산시민이라면 원하는 과목 수업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양, 취미, 자격증, 생활운동 등 다양한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시립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명동’ 책배달 서비스, 북드라이브 스루도 일상에 독서 문화가 깊이 스며

들 수 있도록 도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는 교육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아산 외암마을은 지난해에만 9만7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올 하반기까지 외암마을 둘레길 조성, 경관조명 설치, 인공수로 복원사업, 체현석빙고 건립 등의 추가 정비·복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당간지주만 남아있는 ‘읍내동 당간지주(보물 제537호)’는 2019년부터 정비·복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휴게공간 및 주차장 조성사업, 방문자센터 건립 등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세곶창지(충남기념물 제21호)’는 현재 등지·건축물 매입을 선행하여 발굴조사와 성과 및 유적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인 만큼, 인근 공세리 성당과 연계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산시는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백의준공로 통곡의 집, 해운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등 주요 문화재 이용 및 체험시설 확충을 통해 문화관광객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윤연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교육과 시민의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권역별 문화발전방안과 함께 일상 속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50만이 살아도 넉넉하고 품격있는 문화학습도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이자 더 행복한 문화도시 아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최재은/기자

강릉시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



강릉시는 효율적 재정운영과 정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을 지난 9월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활용하는 상하수도 통합회계프로그램에 15개 자율통제 항목을 연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무와 무관한 시간의 법인카드 사

용 및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타용도로 사용, 각종 공과금 및 경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등 예산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담당자 스스로 행정착오나 의심사실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사전 예방하는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강릉시 지역기업인 상하수도 공기업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201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상수도 사업 부문 강릉시 최초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한편, 2020년 경영실적은 지난 5월 경영공시와 함께 현장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부서장 주관

으로 평소 직원들이 알아야 할 부정청탁금지법·행동강령에 대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다수 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공사·용역 계약에 업체당 면허별 연 2억원의 제한금액을 두는 수의계약총량제를 추진해 공정한 계약으로 공직자 청렴 문화를 확산해 왔다.

김선희 경영지원과장은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으로 공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경영개선과 함께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당진시, 꾸준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공로 인정받아!



지속가능발전 선도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당진시가 7월 7일 서울 중소기업 DMCA타워에서 대한민국환경경대상 공공-지속가능발전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은 대한민국환경경대상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로의 구현과 활동을 장려하고자 대한민국환경경대상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ESG경영을 비롯해 친환경적 접근을 위해 노력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당진시는 이번 심사에서 ▲시민과 함께 석탄화력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전환 ▲당진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모델 수립을 통해 환경·경제·안전 등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가치 대입 ▲지속가능발전 생태계 구축 통한 해당 분야 전문 기관·단체와 거버넌스 방식의 문제해결 등 산업도시에서 환경안전도시로 나아가는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인정받아 본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는 이번 수상을 위해 지난 4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5월 현장방문 심사 과정을 거쳐 총 본상 수상작은 23점이며, 국회와 정부에서도 각 6점과 13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김홍장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당진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잡고 시민과 함께 친환경 안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강원도형 배달앱'일단시켜' 하반기 확대 9개 시군과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형 배달앱'일단시켜'가 연말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7월 13일 10:30, 글로벌 스튜디오 강원LIVE에서 김병중 경제부지사,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이사, 김주홍 대표 경제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확대 9개 시장·군수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비대면으로 '강원도형 배달앱'일단시켜'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강원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이번 협약은 하반기 확대 시군과 함께 '일단시켜'배달앱의 신속한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일단시켜' 홍보,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각 시군은 가맹점 가입과 소비자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코리아센터는 '일단시켜' 운영·관리와 중개수수료, 광고비, 입점비 무료 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협력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은 협약기관과의 협력과 배달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모든 시군으로 '일단시켜'배달앱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강릉, 동해, 태백, 삼척시 등 4개 시군에서 오픈하여 운영 중이고 5월부터 가맹점 집중 모집에 들어갔던 원주, 횡성, 영월군 지역은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8월부터는 홍천, 평창, 양구, 인제 등 4개 시군에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하여 10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나머지 5개 시군도 10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여 연말까지는 모든

시군에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인 코리아센터,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시켜'배달앱은 배달앱 시장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원도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배달앱이다.

7월 9일 기준, 소비자 가입자 수는 3만 4천명이며 가맹점은 속초 481개, 정선 152개 등 9개 시군에서 2,400여 개 업체가 신청하는 등 시군 음식점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배달앱 '일단시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돕고 상생해자는 분위기가 조성에도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군, 코리아센터와 협력하여 도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홍천군, 식객 사로잡는 '홍천 으뜸맛집' 발굴·육성

홍천군은 홍천 으뜸맛집 22개소를 신규로 선정, 최종 30개소로 늘려나간다.

홍천군은 으뜸맛집 신청을 한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의 메뉴와 맛, 위생, 시설, 서비스 등의 심사기준으로 현장심사를 거쳤다.

이번에 선정된 홍천 으뜸맛집은 ▲홍천읍(굴다리막국수, 늘푸름홍천한우프리카, 큰샐터막국수), ▲화촌면(신내나루, 얼큰이손칼국수), ▲두촌면(푸레), ▲서석면(두꺼비가든, 육신산장), ▲영귀미면(다능이, 소군이막국수, 최사랑매밀사랑), ▲남면(유지습터), ▲서면(도담골, 동막골, 숲있가든), ▲북방면(내고향순두부, 원골, 원소리막국수, 흥천한우사랑밥), ▲내면(달뜨는 언덕, 오대산내고향, 이박사남도 자연밥상)로 총 22개소가 선정되었다.

센터는 지역내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민, 관광객들에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음식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음식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부터 홍천 으뜸맛집을 선정해왔다.

으뜸맛집에 선정되면 인증현판 부착, 맞춤형 집중 컨설팅,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블로그 등 SNS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후에도 위생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으뜸맛집으로써 위상을 제고하여 홍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으뜸맛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5년까지 점진적 확대를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동희/기자

이영기, '제9회 KPGA 그랜드CC배 시니어 오픈'서 정상등극... 2개 대회 연속 우승

이영기(54)가 '제9회 그랜드CC배 시니어 오픈(총상금 1억, 우승상금 1천 6백만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케이엠제약 시니어 오픈' 우승에 이은 2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12일과 13일 양일간 충북 청주 소재 그랜드CC 남, 서코스(파72, 6,637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 날 이영기는 보기 없이 버디만 2개를 기록하며 2언더파 70타로 단독선두에 4타 뒤진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이영기는 3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낸 뒤 8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전반에만 2타를 줄인 이영기는 11번홀(파3)에서 버디를 슈어낸 뒤 11번홀(파3)과 12번홀(파5)에서 연달아 버디를 집어넣었다.

기세가 오른 이영기는 14번홀(파4)부터 16번홀(파4)까지 3개 홀 연속 버디에 성공하며 이날만 7타를 줄여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로 공동 2위 그룹에 2타 차 우승을 차지했다.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이 탄생한 것은 2012년 '제9회 경인일보 시니어 마스터스 골프대회', '제17회 한국시니어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최광수(61) 이후 약 9년만이다.

경기 후 이영기는 "양일간 '노보기 플레이'를 펼친 것에 대단히 만족스럽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후반에 3



개 홀 연속으로 버디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었다. 드라이버샷부터 퍼트까지 전체적으로 좋았다"며 "그랜드CC의 코스 컨디션이 최고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그랜드CC 관계자 분들께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2달 전 첫째 아들에게서 '평안'이라는 태명의 손주가 축복처럼 찾아왔다. 손주의 태명처럼 올해 내게 좋은 기운이 찾아오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2년 전 별세하신 장모님 생각도 많이 난다. 이번 우승을 장모님께 바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남은 대회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17년 KPGA 챔피언스투어에 데뷔한 이영기는 이번 우승으로 2018

년 '골프존 체리티 제23회 한국시니어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021년 '케이엠제약 시니어 오픈'에 이어 시니어 무대 통산 3승째를 쌓았다. 또한 1천 6백만원의 우승상금을 추가해 KPGA 챔피언스투어 상금순위 1위(34,940,999원), '통합 포인트' 순위 1위(34,941,000P)에 자리하게 됐다.

석종율(52), 임석규(52)가 최종합계 7언더파 137타로 공동 2위, 전태현(54.케이엠제약), 박형석(50)이 최종합계 6언더파 138타로 공동 4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2021 KPGA 챔피언스투어는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사우링스영암에서 열리는 '제25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로 그 여정을 이어간다.

전순희기자

인천시, 영유아환경인식 및 인천·환경사랑 실천을 위한 '아이사랑 창작동요'경연대회서창작별어린이집'대상'수상

인천광역시시는 인천·환경사랑을 주제로 '아이사랑 창작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의 가치를 부여하고 "환경특별시 인천"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된 본 경연대회는, 미래 꿈나무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사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형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지난 5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가정 등 총 84팀이 공모에 참가해, 최종 13개팀만이 예선과 본선을 통과했다. 이번 대회는 환경주제 적합성, 내용 구성의 대중성, 시사성, 보급 및 활용가능성, 완성도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으며, 환경의 소중함 등에 대한 인식제고 등 홍보 효과가 큰 작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대상(1팀)과, 우수상(2팀), 장려상(10팀)의 우위를 가르는 결선(7.8.개) 때는 엄정한 심사를 위해 시민심사단 60가조를 공모했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전면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가운데, 참가팀 가족과 인천아빠음악아카데미 등 많은 인천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해(시청시민 440여명, 조회수 3,219회), 2시간여 동안 큰 호응



속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인터넷 화면 너머로 생생히 울려 퍼졌다.

이 날 영예의 '대상'은 '용감한 환경 구조대'를 부른 '서창작별어린이집(남동구)'이 선정됐다. 이어서, '4주 공예능어린이집(부평구)'의 '소중한 환경을 지켜요'와 '김하누리(서구)' 어린이의 '지구에게 하는 말'이 각각 '우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대상' 수상곡을 포함한 결선에 오른 13개의 우수 창작동요는 별도 제작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사랑 썬더 등 여러 영유아 시설에 보급할

예정이며, 유튜브 및 SNS에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환경특별시 인천'은 그린뉴딜과 친환경 자원순환,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목표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회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시민 여러분께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덧붙였다.

김종남기자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6850만원 지원

중구는 이달 6일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021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학생과 지역 내 우수한 인재로 총 85명이다.

지난 5월 2021년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를 거쳐 관내 학교 및 동주민센터의 추천과 서류심사를 통해 꿈드림(저소득), 성적우수, 특기(또는 재능), 중구인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7월 최종 선발하여 총 685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 취업준비생 및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와 진로모색을 돕는 중구인재장학생 분야를 신설하여, 지역 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장학생은 기존 중위소득 80%이내에서 100% 이내로 확대해 지원했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장학금 전달식은 진행하지 않고, 장학생 또는 학부모 계좌로 이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올해 10월 중에는 2021년 하반기 장학생을 추가 모집해 지역 내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12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250여개 기업체와 독지가들의 후원에 힘입어 매년 지역 내 학생(학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탁승호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 여건이 바뀌면서 인재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소정의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맡겨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천안시, 천안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임한귀 씨 위촉

천안시는 천안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임한귀 씨(56세)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임한귀 예술감독 겸 지휘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합창음악의 메카인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석사 학위와 덴피스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웨스트민스터 콰이어와 필라델피아 시티 콰이어 등에서 활동했다.

2006년 귀국 그는 남양주시립합창단, 광주광역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에서 상임지휘자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 한국합창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임 예술감독은 "예술성과 대중성의 균형을 맞춘 레퍼토리로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모든 천안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연주회 개



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13일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위촉장을 받은 임한귀 천안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9월 중 취임기념 음악회로 관객과 처음 만날 예정이다.

김원희기자

대전태평초 안경민 전국최강 양궁선수로 '급부상'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태평초 6학년 안경민 학생선수가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2회 전국남여초등학교양궁대회' 제 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2관왕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안경민 학생선수는 4월 말 비대면으로 열린 제55회 전국남여중별선수권양궁대회 20M 경기에서 37위, 5월 제18회 경상북도지사기 전국남여초·중양궁대회 20M 경기에서 34위로 올라선 뒤, 7월 전국소년체육대회 20M 경기와 단체전에서 1위에 등극하며 대전 동부 관내 학생선수 중 전국소년체육대회 첫 2관왕에 올랐다.

4학년 때 호기심에 이끌려 활을 잡은 안경민 학생선수는 연습 때에는

좋은 점수를 유지했지만 유독 전국대회에 나서는 긴장감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입상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전태평초 안경민 학생선수는 "6월 청소년국가대표에 선발되며 자신감을 얻었고, 연습 때처럼 편하게 경기에 임해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했다"라며 "이번 2관왕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라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덕희 교육장은 "끊임없는 노력, 끈기 있는 플레이로 대전 양궁의 명예를 빛낸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양궁 꿈나무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전 국가대표 GK 차기석, 투병 끝에 별세

한때 거스 히딩크 감독의 찬사를 받았던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의 차기석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투병 끝에 13일 유명을 달리 했다. 향년 35세.

1986년생으로 경신중-서울체고-연세대에서 선수 생활을 한 차기석은 200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우승과 함께 MVP를 수상하며 유망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1cm의 큰 신장에 뛰어난 반사 신경과 킥 능력까지 보유하며 차기 국가대표 수문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2003년 핀란드에서 열린 FIFA U-17 월드컵에 참가해 활약했다.

서울체고 3학년이던 2004년 6월에는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에 전격 발탁됐다. 이때가 17세 183일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한민국 역대 최연소 A대표팀 발탁 기록을 세웠다.

2004년 AFC U-19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우승을 이끈 데 이어, 이듬해 네덜란드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에서도 차기석은 대한민국의 골문을 지켰다.

2005년에는 거스 히딩크 전 남자 A대표팀 감독이 이끌던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 훈련에 참가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06년 초 전남드래곤즈

전지훈련 도중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 받았지만 프로 무대에 데뷔하지는 못했다. 이후 경주시민축구단, 부천 FC1995 등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지만 또 다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결국 2010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은퇴 이후 모교인 연세대에서 골키퍼 코치로 활동했지만 다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고, 최근에는 만성신부전증에 버거씨병과 다발성근염이 겹치며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간 끝에 이날 별세했다.

전순희기자



차기석

세종 장애인 유도팀, 전원 금메달 수상 쾌거



세종특별자치시장에인체육회는 최광근·황현·정숙화·이가는 선수로 이뤄진 유도 실업팀 전원이 지난 10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2021년 전국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전원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체급별 경기에서 최광근 선수는 시각 남자 100kg 이상급, 황현 선수는 청각 남자 73kg 미만급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정숙화 선수는 청각 여자 52kg 미만급, 이가는 선수는 시각 여자 70kg 미만급에서 우승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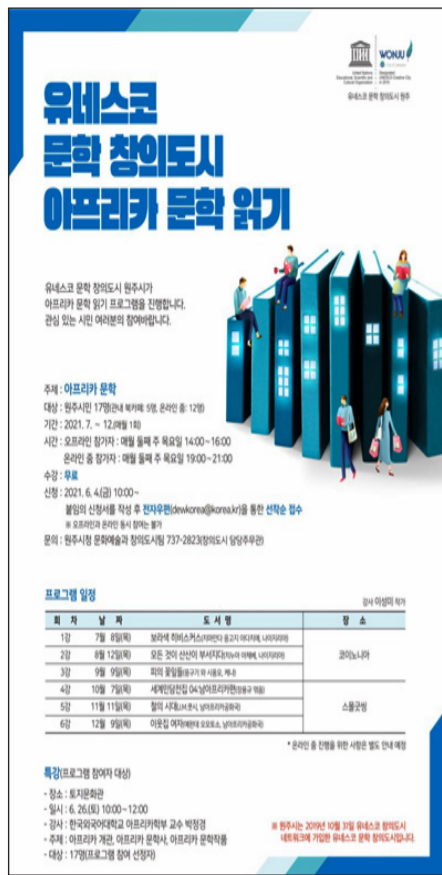
했다. 이번 대회는 2022년도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경기로 향후 세종시 유도팀 전원이 국가대표에 발탁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준희 장애인 체육회장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 '아프리카문학읽기' 운영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이해 높이기 위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아프리카 문학 읽기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에서 아프리카 문학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주 시민 대상 아프리카 문학 읽기 프로그램이다.

주요 일정

1차: 7월 17일(토) 19:30 ~ 21:00
2차: 7월 24일(토) 19:30 ~ 21:00
3차: 7월 31일(토) 19:30 ~ 21:00
4차: 8월 7일(토) 19:30 ~ 21:00
5차: 8월 14일(토) 19:30 ~ 21:00

신청: 2021. 6. 14(수) 10:00 ~ 2021. 7. 16(금) 18:00

문의: 원주시 문화체육관광과 (033-252-2222) 또는 원주시 문화체육관광과 (033-252-2222)

주제	날짜	도시명	강사
1차	7월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김민희
2차	7월 24일	케냐	김민희
3차	7월 3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김민희
4차	8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김민희
5차	8월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김민희

원주시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사업의 하나로 시민 대상 「아프리카 문학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첫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두 번째 목요일에 지역 북카페와 온라인에서 전문 읽기 강사를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다.

매월 교재를 달리해 작가와 지역 이슈 소개, 작품 배경 소개, 참가자들의 작품 감상, 인상적인 장면과 문장 나누기, 작품과 감상에서 나온 이슈와 주제에 대한 토론 등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 9일에는 이성미 작가가 나이지리아 작가 치마만다 응고지 아다치에의 '보라색 히비스쿠스'를 선정해 북카페 코이노니아에서 첫 강의를 한 데 이어 같은 날 줌(zoom)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8월에는 역시 나이지리아 작가인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가 예정돼 있으며, 12월까

지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느낀 감상과 책의 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6월에는 프로그램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문학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부 박정경 교수로부터 '아프리카 문학과 역사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문학 읽기」 프로그램은 원주시가 2019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문학 창의도시로서 영미권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향유의 기회가 적었던 아프리카 문학을 시민들과 함께 접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원주시는 2019년 당시 프랑스 파리에 제출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에 문학 창의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시민 향

유를 높이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아프리카 문학 읽기」는 이를 구체화한 사업이다.

원주시는 올해 「아프리카 문학 읽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아랍 문학 읽기, 동유럽 문학 읽기 등 영미권 문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권의 책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읽기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도시의 성장을 목표로 시작된 유네스코의 글로벌 플랫폼이다.

문화와 창의성을 활용해 회원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며 문학, 공예&민속, 디자인, 영화, 음식, 미디어예술, 음악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 84개국 246개 도시가 회원 도시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분야에는 현재 원주시 포함 28개국 39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이동원/기자

경기도, 8월 10일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74명 공개모집

경기도가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7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74명을 공개 모집한다.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될 미술작품의 심의·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도는 2019년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심의위원 임기(1년 단임) 동안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 금지 ▲심의위원 인원 확대(다른 광역 지방정부는 11~52명) ▲심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회 심의 참여 등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할 심의위원은 조각, 회화, 평론, 큐레이터, 디자인,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전문가다. 총 74명이지만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의 엄격한 심의 기조를 유지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 한다"며 "예술계의 공정한 경쟁에 기여하면서 전국을 선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관련 이미지

동주택 건축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전순희/기자

BAT 코리아와 함께하는 사천 락 페스티벌, 코로나 19로 '실내 공연'으로 전환

BAT 코리아와 함께하는 사천 락 페스티벌이 실내공연으로 전환된다.

13일 사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사천 락 페스티벌'의 개최장소를 변경하기로 했다.

당초 7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20분 동안 삼천포대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천 락 페스티벌'이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으로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개최날짜와 시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번 실내공연 전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마련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연장을 뜨겁게 불태우며 열정적으로 락의 세계로 이끌 김경호, 박완규, 홍경민, 에메랄드 캐슬, 노바소닉 등 출연진은 물론 50여명의 스태프들도 자가진단키트로 진단 후 반드시 결과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 공연장 좌석간 거리두기로 총 좌석의 50%만 허용(400석)하고, 공연장을 찾지 못한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공연인 이번 락 페스티벌의 티켓예매는 문화가족회의의 경우 13일부터 사전예매가 가능하며 일반예매의 경우 14~15일까지 진행된다.

최광용/기자



2021 ROCK FESTIVAL

2021. 7. 16. (금) 19:30

사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료공연(선착순) / 전체좌석 50% 입장

사전예매 7.13. (화) / 문화가족
일반예매 7.14. (수)~15. (목) / 1인 1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단지역 거주자 예매자재
유튜브 온라인송출 / YouTube / 사천문화재단

문의처: 사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cff.or.kr)
문의전화: 055. 835. 6417

홍천군, 수상한 젊은 광대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연희 코미디 SHOW



수상한 젊은 광대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연희 코미디 SHOW!

수상한 젊은 광대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연희 코미디 SHOW!

수상한 젊은 광대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연희 코미디 SHOW!

2021. 7. 28. (수) 저녁 7시 30분

홍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홍천문화재단은 7월 28일 오후 7:30 '수상한 광대들' 공연을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중앙공모사업 [2021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공연산책]의 두 번째 공연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우리 전통연희의 요소인 가(歌, Song)·무(舞, Dance)·악(樂, Music)·극(劇, Drama)을 융합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험적 작품이다.

이어 버나놀이, 죽방울놀이가 이어지고 서양 리듬과 점목한 사물놀이, 파워풀한 열두발 삼도놀이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전통 버라이어티쇼의 진수를 선보인다.

전통예술은 '재미없고 오래된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리는 예측불허한 작품 '수상한 광대들'을 공연하는 '이끌림 연희창작소'는 2018년 제7회 대한

민국 창작품물대전 창작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리 전통예술을 전공한 젊고 창의적인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전통연희의 종합예술적인 요소들을 실험적인 시도와 도전을 통해 대중적인 콘텐트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독특한 퍼포먼스와 코미디쇼를 컨셉으로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수상한 광대들'은 홍천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홍천군민만이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예매가 필수이다.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홍천문화재단 유선으로 1인당 4매까지 선착순 예매할 수 있다.

이동원/기자

광안리 바다 위 펜수 포토존 조성



부산 수영구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안리해변에서 EBS 크리에이터 '펜수'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광안리 바다를 SUP(Stand Up Paddleboard)의 메카로 만들고자 6m 높이의 'SUP 타는 펜수'를 광안리해안레포츨센터 앞 바다 위에 조성하여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이색적이고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SUP 도킹 장치를 설치하여 SUP(패들보드)를 즐기는 구민 및 관광객들이 펜수와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해상 펜수 포토존에서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바다 펜수 포토존 앞에서 SUP(패들보드)를 타고 도킹 장비 위에 올라 연인·친구들과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상 안전 부표를 두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연인·친구들과 여름 휴가철 SUP를 타면서 부산 안심관광지인 광안리 SUP ZONE에서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전남도, 우리 숲 나무들 세밀화로 들여다보세요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15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숲 나무들 세밀화로 들여다 보자'라는 주제로 '국립수목원 식물 세밀화 순회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청소년이 식물체의 다양성과 미세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변 식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의 미세한 조직과 구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여러 작가의 25개 작품이 농업박물관 농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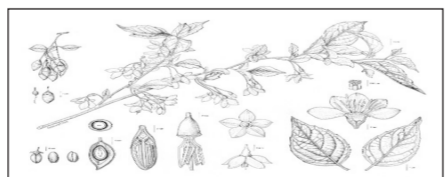
화관 로비에 전시된다. 국내 숲에서 서식하는 단풍나무를 비롯해 광활나무, 오리나무, 아왜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층층나무, 느릅나무, 때죽나무, 음나무 등을 묘사한 작품을 선보인다.

세밀화는 가는 붓을 사용해 매우 정교하게 그린 그림이다. 식물체가 가진 외부 모습과 형태학적 특징을 작가가 가진 섬세하고 감성적인 느낌과 함께 정확하게 표현한 과학과 미술이 어우러진 예술품이다.

이밖에 농업박물관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국내 시드볼트와 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백두대간 자생재와 아름다움에 반하다'란 주제로 '시드볼트 Art-SEM 사진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충남도, 우리 동네 백제문화유적을 소개합니다



김승일/기자

충남도, 특허 4건 등 국방산업기술 개발 '착착'

충남 국방 벤처센터, 2020-1차 지자체 개발비 지원사업 완료

충남도는 14일 충남국방벤처센터(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 주관 '2020-1차 지자체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3개 국방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남국방벤처센터는 도와 논산시가 출연금을 투입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 운영하는 국방산업 지원기관으로, 2019년 9월 건양대 내 개소했다.

센터는 35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사업화 신규 과제 발굴 △기업 보유 기술의 국방 사업화 및 관료 확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협약기업 연구·개발 육성사업은 방위사업청의 방산육성 지원사업과 지자체 출연금을 사용하는 지자체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6개 국방 연구·개발 과제(6

개사)를 선정해 도와 논산시 출연금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차 3개 과제에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1억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달 초 최종 평가를 마치고 마무리했다.

이번 1차 3개 과제는 △표면 강화를 위한 주조 방법, 회전의 항공기용 냉방장치 등 4건의 관련 특허 출원 △방산 전시회 출품을 통한 자사 기술 및 제품 홍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천안 소재 A기업이 이번 과제를 통해 확보한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자원부가 실시한 '2021년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 사업' 공모에 주관기업(3년간 40억 원 지원)으로 선정됐다.

또 서천 소재 B기업은 이번 과제를 응용해 약 18억 원대 수주를 추진 중이다.

천안 소재 C기업은 헬리콥터용 장·탈착식 냉방기를 시제 제작하며 제



조 능력을 입증해 제품 공급을 논의 중으로 약 25억 원 규모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통해 협약기업의 성공적인 국방산업 진출을 돕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울산시, 내년 국비사업 민주당 전폭지원요청

울산시가 광역도시 기반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7월 13일 오전 10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 울산시에서는 송철호 시장과 양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고윤진 수석대변인,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울산의료원 설립 ▲부유식 해상풍력 콤플렉스 조성 ▲고차장 자석 원천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 학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기술전환 지원 등 울산의 광역 도시 기반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핵심 국비사업이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문제 동시 해결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인구대책과 광역연합 등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도 요청한다.

이 중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은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구축과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울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울산시는 오는 9월까지 2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현재 '울산의료원 설립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2030년까지 원전 6기와 맞먹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



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해 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전도 고차장 자석 기술'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고성능 엠아라이(MRI), 전동기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전기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블루오션 사업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고차장 자석 원천기술 기반 구축 등 핵심 사업은 울산시와 대한민국 의 산업혁신과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 정책과제에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송 시장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 지역정치권 공조를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김기현기자

(주)원익큐엔씨, 구미에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공장 투자

구미 하이테크밸리(5공단) 내 2만 5천평, 800억원 투자, 250명 고용 창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4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 임창빈 (주)원익큐엔씨 대표이사, 도의원 등이 참석해 (주)원익큐엔씨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제조공장 증설 투자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주)원익큐엔씨가 2021년 ~ 2024년까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2만 5천평에 800억 원을 투자해 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주)원익큐엔씨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퀴츠, 세라믹, 랩프, 세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구미 투자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에 필요한 퀴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기존 구미 3개 사업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반도체산업의

호황속에 반도체 소재인 퀴츠의 글로벌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983년 설립된 (주)원익큐엔씨는 구미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대만, 미국, 중국 등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의 대기업에 반도체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직원 1,980명 2020년 매출 5,256억 원, 영업이익 412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도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주)원익퀴츠로 기업분할 되었으며, 2012년 (주)원익퀴츠에서 (주)원익큐엔씨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1월 반도체 소재(원재료) 생산 기업 미국의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에 퀴츠·세라믹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도약했다.

(주)원익큐엔씨가 신규 투자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의성과 직선거리 약 7km 인접해 있어 15분 이내로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배후 산업단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경부·중앙·상주영천·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포함해 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구미는 향후 공항, 철도, 사통팔달의 교통발달로 땅과 하늘길



이 모두 열려 접근성이 뛰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소재·부품전문기업들의 투자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 확보! 수출활성화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선박이 오는 7월 17일 첫 출항을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404백만 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 항로 선박에 매일 265TEU(농식품 200TEU, 수산식품 65TEU)의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하여, 김치, 김, 어묵 등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자 모집 결과, 김치·버섯·즉석

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식품 14TEU가 신청·접수되었으며, 7월 17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7월 13일(화) 오후 2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와 국적선사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MM은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하여 우선 제공하고, aT는 해당 물량의 신청·접수 등 운영·관리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농수산식품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누리집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량 화주의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8월부터 소량혼적화물(LCL)도 선복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은 품목 특성에 따라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여 적기 선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물류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 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동백잎 기능성 가공처리기술 특허 출원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는 전남에 분포하는 난대수종인 동백나무 잎의 기능성을 증진하는 가공처리기술을 밝혀내고 이를 특허출원 했다고 밝혔다.

건조한 동백 잎(완도 자생)을 뒤을 처리한 결과 일반 차류보다 폴리페놀과 항산화능이 10~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떫은맛을 내는 탄닌산과 카테킨 성분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활용한 음료 제품 개발 시 맛과 기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뒤을 가공처리한 동백잎의 항암효능을 실험한 결과 두경부암세포 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경부암은 머리에서 가슴 윗부분 사이인 두경부에 생기는 암이다. 대

표적으로 구강암, 후두암 등이 있다. 암이 진전되면 약물치료가 불가피해 최근 면역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적합한 약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백 잎은 천연 원료로서 부작용이 적어 안전한 치료제 공급원으로 쓰일 전망이다.

전남의 도화이자 난대 산물활용수인 동백나무는 조경수나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전국의 51%가 전남에서 자생하고 있지만 종자유를 활용한 향장 분야로의 산업적 이용에 그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동백잎을 활용한 다(茶)류, 건강식품 등 식품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원한 특허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1 산림 분야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사업' 우수기술로 선정돼 특허출원 비용의 80%를 지원받았다.

백효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연구사는 "동백 등 전남 비교우위 수종을 지속해서 연구해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내고 나아가 특허출원과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임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여름 극복 건강먹거리' 최대 60% 할인판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이달 18일까지 경기도 특산물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는 '여름 극복 기획전'을 연다.

경기도 농수산식품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획 판매전은 여주 고구마, 김포 금쌀 등 100여개 품목을 선보인다. 특히 더운 여름을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 먹거리'로 구성했다.

상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주 간편달달 아이스 고구마 맛탕 800g(80g 10팩)을 60% 할인해 기존 2만6,000원에서 할인가 1만400원으로 판매한다. 이어 ▲포천 미니사과주스(100ml×24개입) 기존 2만4,00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안산 시니어클럽 건강미 현미누룽지 기준 1만1,000원에서 7,700원으로 30% 할인 ▲오산 2배로 진한 콩국수용 콩물(340g×5팩)이 1만6,000원에서 1만800원

으로 32% 할인 ▲평택 무항생제 삼겹살 600g이 2만3,800원에서 1만6,640원으로 30% 할인을 각각 진행한다.

마켓경기 홈페이지 내 '찜(기존 찜 회원 포함)' 혹은 '소식 알림' 기능을 이용하면 1,000원 쿠폰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4일까지 모집 중인 마켓경기 암행모니터링단에 온라인 지원하면 마켓경기 쿠폰 2만원을 발급받고 상품을 받아보면서 상품 및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일부 품목은 할인 적용 수량이 있어 조기 판매 시 정상가로 돌아갈 수 있다. 무료 배송비 조건도 업체 정책에 따라 상품마다 다르다.

박영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략사업본부장은 "소비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마켓경기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FUN하고 COOL한 여름극복

마켓경기 여름 할인전! 시원하게 Cool Down

2021.7.9 ~ 7.18

최대 60% SALE

'알고있지만' 송강X한소희X채종협, 설렘 자극하는 '심쿵' 비하인드 공개! 설레는 변화의 시작

'알고있지만'의 짜릿한 연애 게임에 설레는 변화가 시작됐다.

JTBC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연출 김가람, 극본 정원, 제작 비온드제이·스튜디오N·JTBC스튜디오/원작 네이버웹툰 <알고있지만>(작가 정서))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더 흥미진진해진 로맨스를 그려내고 있다. 박재연(송강 분)과 유나비(한소희 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에 접어들었고, 십 년 만에 재회한 양도혁(채종협 분)은 박재연과 다른 순수한 매력으로 유나비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아슬아슬한 감정과 설렘을 넘나드는 청춘들의 예측 불가 로맨스는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유나비와 박재연은 술한 밤을 함께 보내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었다. 박재연의 모든 행동은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 그를 향한 유나비의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하지만 박재연은 결정적인 순간에 유나비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이는 뜻밖에도 양도혁(채종협 분)이었다. 박재연과 헤어지고 혼자가 된 것 같은 생일날 밤, 유나비는 양도혁 덕분에 공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있었다. 한편, 박재연과 유나비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학내에 퍼지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꿈 같은 밤들이 지



난 후,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또 한 번 급변하는 로맨스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박재연과 유나비의 달달한 모습들은 매 순간 시청자들의 설렘을 유발

했다. 눈이 마주치면 절로 새어 나오는 미소, 숨길 수 없는 다정한 눈빛과 애정 어린 장난들은 막 시작하는 연인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내며 가슴 뛰게 했다. 카메라 밖에서도 달달

한 송강, 한소희의 케미스트리에서 이들의 호흡을 엿볼 수 있다. 박재연과 유나비의 복잡미묘한 감정선과 달콤한 순간들을 디테일하게 맞춰 보는 두 사람, 극강의 로맨틱 텐션이 설렘을 더한다.

유나비와 양도혁의 만남 역시 뜨거운 반응을 자아낸 포인트. 속내를 알 수 없는 태도로 심장을 쥐락펴락했던 박재연과 달리, 양도혁은 순수한 매력으로 유나비에게 성큼 다가왔다. 나뉘 쓴 우산 아래 마주 보고 선 유나비와 양도혁의 모습에서는 싱그러움이 물씬 느껴진다. 유나비를 향한 양도혁의 직진이 본격적으로 시작, 청춘 로맨스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만만치 않은 '변수'의 출격에 이들 로맨스의 향방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궁금해진다.

'알고있지만' 제작진은 "양도혁이 등장하면서 스물셋 청춘들의 로맨스에 제대로 불이 붙는다. 연애 게임에 짜릿한 변화 있을 것"이라며 "아리도록 달콤했던 순간이 끝나고 찾아온 폭풍은 박재연과 유나비의 마음에 타격을 입힌다. 특히, 유나비를 대하는 박재연의 달라진 모습이 색다른 설렘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JTBC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 5화는 오는 17일(토) 밤 11시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간동거' 장기용-이혜리, 설렘 폭발 '여우담엔딩' bset 5

tvN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이혜리의 '여우담 커플 엔딩'이 화제다. '간 떨어지는 동거'(이하 '간동거')(연출 남성우/극본 백선우, 최보림/제작 스튜디오드래곤, JTBC스튜디오)는 999살 구미호 어른신 신우여와 쿨내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 구슬로 인해 얼떨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치는 비인간적 로맨틱 코미디. 종영까지 단 2회 남은 가운데 매회 설렘을 터트린 '여우담 커플 엔딩 베스트' 다섯을 짚어본다.

#3회 우산 마중 엔딩
신우여(장기용 분)와 이담(이혜리 분)의 로맨틱 지수가 한껏 고조된 엔딩이다. 우여는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담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했다. 이후 빗 속을 달리는 담이 앞에 우산을 든 우여가 나타나 설렘을 자아냈다. 특히 우여는 "제 전화를 안 받길래요. 담이시 앞으로 내가 바로 앞에서 전화 걸어도 받아오"라고 말해 심장을 뛰게 했다. 특히 이때 둘의 눈빛에서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호감으로 바뀌며 설렘을 더욱 배가시켰다.

#4회 고전 남독 엔딩
우여와 담이의 로맨스가 본격 시동을 켜 엔딩이다. 우여는 담이와 정이 깊어지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에 가슴앓이를 하던 담이 우여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둘의 진심이 마주했다. 특히 담이는 예전처럼 지내자며 복받치는 감정을 터트렸고, 이에 우여가 담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고전소설 속 한 구절을 읊어줘 설렘을 높였다. 특히 우여의 달콤한 음성과 우여를 향한 자신의 달라진 마음을 깨닫는 담이의 모습이 담기며 향후 전개에 관심을 치우게 했다.

#9회 격정 키스 엔딩
우여와 담이의 격정적인 키스가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은 엔딩이다. 담이를 향한 사랑이 커질수록 구미호인 우여의 동물적인 욕망도 드러났다. 우여는 자신을 보기 위해 깜짝 방문한 담이에게 돌발적으로 입을 맞췄고, 이후 이성을 잃고 더욱 격정적인 입맞춤을 해 담이를 놀라게 했다. 구미호의 본능을 깨운 우여의 모습에서 섬뜩함과 색시함이 동시에 폭발하며 여심을 뒤흔들었다.

#13회 동거 선언 엔딩
담이의 직진이 짜릿한 설렘을 터트린 엔딩이다. 담이는 산신으로부터 우여의 여우 구슬을 푸르게 물들이는 것은 인간의 정기가 아닌 '인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놀라움을 안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이는



즉시 집을 싸서 우여의 집으로 향했다. 담이는 "우리 동거해요. 내가 어른신 인간 좀 만들어드리려고요"라며 두 번째 동거를 선언했다. 우여의 인간성을 일깨우기 위한 담이표 직진로맨스가 예고되며 기대를 높였다

#14회 직진 키스 엔딩
우여가 억눌러온 스킨십을 봉인 해제해 안방극장을 후끈 달군 엔딩이다. 담이는 산신에게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았다면서 "이제 위험한 일 없을 것 같아서"라며 우여에게 수줍게 입을 맞췄다. 이에 우여는 "이제부터 진짜 위험해 질 것 같은데"라며 진한 키스로 화답해 설렘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이후 우여는 침대 위에서 담이의 콧등에서 입술까지 입을 맞춘다는 이들의 심박수를 최고조로 치우게 했다.

이처럼 '여우담 커플'은 매회 엔딩마다 짜릿한 설렘을 안기며 안방극장을 매료시키고 있다. 특히 담이의 도움으로 우여가 점차 인간성을 깨닫는 가운데, 인간과 구미호의 로맨스가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는지 남은 2회 방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tvN '간 떨어지는 동거' 매주 수,목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센세이션 추적 스릴러 '암살자들', 스페셜 포스터 공개

전 세계가 경악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센세이션 추적 스릴러 '암살자들'이 스페셜 포스터를 공개했다.

'암살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해 암살의 실체를 추적하는 작품이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으로, 제30회 선댄스영화제(2014)에서 '더 케이스 어게인스트 8'으로 감독상을 수상해 미국은 물론 일약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네 번째 다큐멘터리이다.

공개된 스페셜 뉴스페이퍼 포스터는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김정

남 암살사건이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것 같은 리얼함을 더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2021년 8월 12일, 김정남 암살사건의 전말이 드러난다'는 헤드라인 카피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빈티지 느낌의 스페셜 뉴스페이퍼 포스터는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암살사건 당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CCTV에 포착된 김정남과 그의 양 옆으로 두 여성의 사진이 대면적만하게 실려있다.

이들은 김정남 암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대낮에 대담한 암살을 벌인 베트남인 '도안 티흐영'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사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대담한 암살'이라는 미국 보스턴

헤럴드의 평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반전 드라마틱 스토리를 담았음을 짐작케 한다.

찢긴 종이에 의해 반만 보이지만 누구인지 짐작 가능한 인물이 드러난 '암살자들' 메인 포스터도 눈길을 끈다. 신문 기사 글처럼 적힌 시놉시스는 김정남 암살사건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며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8월 12일 개봉을 확정된 센세이션 추적 스릴러 '암살자들'은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98%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내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스페셜 뉴스페이퍼 포스터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인 '암살자들'은 오는 8월 12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최재은/기자



배우 이청아, 제이와이드컴퍼니와 전속계약 체결!



성 있는 연기를 펼치는 것은 물론 다방면으로 활발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이청아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탄탄한 연기력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이청아가 보다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서포트 할 예정이다. 이청아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2002년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으로 데뷔한 이청아는 영화 '늑대의 유혹'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후 드라마 tvN '꽃미남 라면가게', MBC '운빨로맨스', SBS 'VIP', tvN '낮과 밤' 등의 작품에서 몰입도를 높이는 열연으로 인생 캐릭터를 경신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했다.

특히 SBS 'VIP'로 완벽한 연기 변신에 나선 이청아는 2019년 SBS 연기대상 여자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MBC every1 '시골경찰4', tvN '아모르파티', Olive '모두의 주방' 등에선 영화,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들로 사랑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청아가 어떤 작품과 활동들로 찾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유주/기자

티빙 새 오리지널 '골신강림' 첫 대표 이미지 공개!



강호동, 신동엽이 골프의 신으로 변신했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의 첫 대표 이미지가 공개됐다.

오는 8월 13일 금요일 첫 공개될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 (기획·제작 jtbc스튜디오, 스튜디오 룰루랄라, 미스틱스토리)은 자타공인 연예계 골프 최강자 강호동과 신동엽이 라이벌 골프친구에서 운명공동체가 되어 골프 레전드들과의 대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고 MC 강호동과 신동엽, 그리고 재담꾼 이수근이 특별해설위원을 예고해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다.

최광수/기자

처음으로 공개된 대표 이미지에는 익살스러운 강호동과 신동엽의 표정이 담겼다. 먼저 강호동은 마치 대결에서 승리한 듯한 신난 모습으로 포스터의 문구처럼 그의 골프 클래스가 남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 이미지만 보아도 들리는 강호동의 파이팅 넘치는 포즈는 보는 이들에게 유쾌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홀 인 원(Hole in One)을 성공시킨 듯 놀란 신동엽의 표정은 첫 야외MC로 활약할 그의 모습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프로 선수인 듯한 그의 자세는 필드를 정복할 신동엽의 모습을 그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골프공 위에서 환호를 외치고 있는 이수근의 모습은 작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예상케 한다. 센스있고 감각적인 색으로 꾸며진 첫 이미지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골신강림' 제작진은 "공개된 이미지처럼 필드를 유쾌하게 정복할 강호동과 신동엽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라며, "뜨거운 여름, 두 사람이 날리는 풍성함을 통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편, '골신강림'은 오는 8월 13일 금요일 오직 티빙에서 첫 공개된다.

이민기, 영화 '데시벨'(가제) 특별 출연

배우 이민기가 영화 '오작한 연애', '몬스터'에서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이어온 황인호 감독의 신작 '데시벨(가제)'에 특별 출연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배우 이민기가 영화 '데시벨(가제)'에 특별 출연했다. 영화 '데시벨(가제)'은 소리에 반응하는 특수폭탄으로 도심을 점거하려는 테러범과 그의 타깃이 된 해군 부함장 출신의 한 남자가 만나며 벌어지는 도심 테러 액션 영화다.

차별화된 소재와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크로스 장르 장인'이라 평가받는 황인호 감독이 '오작한 연애', '몬스터'에 이어 세 번째 연출하는 영화다.

이민기는 황인호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자, 관객 수 300만 명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오작한 연애'를 시작으로, 이민기의 이미지 변신이 화제가 된 영화 '몬스터'까지 함께 했다.

그런 황인호 감독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 이민기는, 신작 '데시벨(가제)'의 특별 출연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데시벨(가제)'에서 이민기는 해군 대위 역할을 맡았다. 이번 영화에서도 배역에 대한 놀라운 몰입도로 연신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 내며, 특별



출연 이상의 열연을 펼쳐 현장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함께 출연하는 김래원, 이종석, 차은우와 무게감 있는 연기 호흡을 맞춰 나갔다.

사건 속 이민기는 진중한 표정으로 눈길을 끈다. 강렬한 눈빛에 담긴 결연함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만큼, 이민기가 극 중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영화 '데시벨(가제)'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화학 폭탄, 폭파 전문가들의 생생한 자문을 통해 실제 대규모 도심 테러 발생을 방불케 하는 폭파 장면과 이를 막으려는 주인공들의 추적을 실감 나게 그려 내고 있다.

전순희/기자